

# 행복배움학교 실천사례집

2 0 2 2

Change the world



# 행복배움학교

## 실천사례집

2022

Change the world



# 행복배움학교 실천사례집

2022

## Contents

1	인천계산초등학교	민주적 학교 운영	05
2	인천금마초등학교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11
3	인천남동초등학교	배움 중심의 수업	15
4	인천도림초등학교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21
5	인천동암초등학교	민주적 학교 공동체	27
6	인천부평북초등학교	민주적 학교 운영	33
7	인천상정초등학교	민주적 학교 공동체	39
8	인천석암초등학교	학교 내 학부모 참여 확대	43
9	인천용정초등학교	윤리적 생활공동체	49
10	인천주원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55
11	인천창영초등학교	문화예술 교육과정 활성화	59
12	인천해서초등학교	정기 학생자치회의 운영	67
13	인천별빛초등학교	마을교육	75
14	연성중학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학생자치 활동	79
15	관교여자중학교	민주적 학교 공동체	83
16	신흥여자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89
17	인천상정중학교	민주적 학교 운영	95
18	부평동중학교	배움 중심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주제통합수업 수업나누기	101
19	동암중학교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	107
20	작전여자고등학교	민주적 학교 공동체	115
21	인천세원고등학교	민주적 학교 공동체	121
22	안남고등학교	민주적 학교 공동체	127



## 민주적 학교 운영

푸르른 5월, 마을로 떠나는 여행! 계양산 품에 안기기

# 인천계산초등학교





## 푸르른 5월, 마을로 떠나는 여행! 계양산 품에 안기기

학교명	인천계산초등학교	작성자	교사 이향숙
중점과제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세부과제	민주적 학교 운영
주제영역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참여주체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교육청, 마을운동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지친 학생과 교사의 정서적인 건강과 회복 지원</li> <li>학교교육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마을운동가의 연대와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는 교육 문화 조성</li> <li>체험 중심의 마을 생태·역사·문화 교육 활동 전개</li> </ul>		

### 1 <계양산 품에 안기기>의 시작

우리 학교에선 창밖으로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사계절 계양산을 볼 수 있다. 이 멋진 풍경을 언제든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은 계산초 학생과 교직원이 누리는 커다란 축복 중 하나이다.

계양산은 강화를 제외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산책하듯 걷기 좋은 둘레길도 잘 마련되어 있어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나 지역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둘레길 걷기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곤 했었다. 하지만 지난 2년, 코로나19 확산세로 모두가 함께 걷던 둘레길 행사가 중단되면서 개인이나 가족 단위 등 소수로만 계양산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4월,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다행히도 확진자는 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계양산을 지척에 두고도 2년 동안 교문 밖을 나설 수 없었던 우리들의 답답함, 허전함을 계양산이라는 포근한 자연 속에서 위로 받고 싶었다.

<계양산 품에 안기기>행사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 속 외침에서 시작되었고 지역교육청과 마을 활동가들이 이 행사를 지원해 주어 더욱 풍성하고 알찬 행사로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이전의 추억의 계양산 둘레길 걷기 체험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연계와 협력으로 <계양산 품에 안기기>라는 자연생태·역사·문화 체험으로 되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다.

## 2 <계양산 품에 안기기>의 준비

### ○ 계양산 둘레길 코스 정하기

행사의 준비 단계에서 가장 고민했던 점은 둘레길 코스 선정이었다. 선생님들의 의견은 2 가지로 나뉘졌다. 학생들의 체력이 다르니 학년군별로 수준에 맞는 각기 다른 코스를 정해서 안전하게 다녀와야 한다는 의견과 모두가 함께 걸어 완주하는 데 큰 의의가 있으므로 힘들어도 같은 코스로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행사의 큰 뜻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했다. <계양산 품에 안기기>는 마을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체험한다는 목적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계산교육공동체가 처음으로 모두 함께하는 행사라는 점이 중요했다. 이 두 가지 의의를 모두 살리기 위해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는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코스를 정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 코스는 저학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코스이기도 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6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1학년 동생들이 끝까지 둘레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1일의 형제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이 미션은 정말 기가 막하게 큰 효과를 거뒀고 장난꾸러기 1학년이 6학년의 선배들의 말을 이렇게나 잘 듣고 따라다닐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 ○ 계양산 둘레길 코스 사전 답사

우리가 정한 둘레길 코스는 아래와 같았다.

학교 → 계양산 장미원 → 피고개 → 목상동 솔밭(최종코스) → 피고개 → 계양산 장미원 → 학교



장미공원 입구



장미이고개에 얹힌  
옛이야기 듣기



피고개 가는 길



둘레길 코스 표식

4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은 우리가 정한 계양산 둘레길 코스의 사전 답사였다.

먼저 학생들의 체험 장소인 장미원, 피고개, 목상동 솔밭에 들러 위치를 확인하였고 장소마다 학생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였다. 또한 여러 갈래로 나눠진 혼란스런 길에는 잘못된 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방향을 식별할 리본을 나무에 달아 표시하였다.

## 3 푸르른 5월, 마을로 떠나는 여행! <계양산 품에 안기기>

야외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날씨이다. 아무리 치밀히 계획해도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하면 성공적일 수 없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들의 2년만의 외출 날, 하늘은 더없이 파랗고 봄바람은 따뜻했다. 교장 선생님을 선두로 하여 전교생이 학교에서 출발해 장미공원으로 이동했다. 장미공원에 먼저 도착한 학급은

마을활동가들이 준비한 3가지 놀이 마당을 신나게 체험하였다. 장미공원 체험이 끝난 학급은 다음 코스인 피고개로 이동하였다. 피고개로 넘어가는 길엔 2가지 옛이야기(장사굴이야기, 목상동이야기)코너가 준비되어 있어 우리 마을에 얹힌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며 쉬어갈 수 있었다. 마침내 도착한 최종 목적지인 목상동 솔밭엔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추억의 보물찾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보물찾기와 목상동 솔밭에서의 휴식 후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1시간 넘는 산행은 모두를 많이 지치고 힘들게 했다. 혼자 가면 몹시 지치고 힘든 길이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함께 걸었기에 낙오자 없이 학교까지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다.

● 일시: 2022. 5. 4.(수) 08:40 – 12:10

● 대상: 전교생 (1~6학년) 210명

### ● 이동 코스

학교 → 계양산 장미원 → 피고개 → 목상동 솔밭(최종코스) → 피고개 → 계양산 장미원 → 학교

### ● 학년별 출발 순서

학년	이동학급	출발시간	인솔 교사	비고
1,6학년	6-1반과 1-1반/ 6-2반과 1-2반	08:40	학급담임(4명), 전담교사(2명)	
2학년	학급별 출발 (2-1/2-2)	학년 순서대로 뒤 이어 출발	학급담임(2명) 특수교사(1명)	*담임교사 학급 학생 인솔 *전담교사 및 관리자는 대열에서 이탈된 학생 지원
3학년	학급별 출발(3-1/ 3-2)		학급담임(2명), 전담교사(1명)	
4학년	학급별 출발 (4-1/4-2)		학급담임(2명), 전담교사(1명)	*보건교사 의료지원
5학년	학급별 출발 (5-1/5-2)		학급담임(명) 특수학급실무원(1명)	

### ● 일정

단계	소요시간	운영 내용	장소	비고
출발	08:40~09:00	○학교에서 출발(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사전교육)	학교	
활동	09:00~09:20(20분)	○놀이마당(문화, 옛이야기, 생태체험) 체험하기	장미원	*마을활동가 진행
	09:20~10:30(70분)	○둘레길 걷기 ○옛이야기 듣기(피고개 가는 길)	계양산 둘레길	*마을활동가 진행
	10:30~11:00(30분)	○추억의 보물찾기 ○놀이마당 체험하기	목상동 솔밭	*학부모회 *마을활동가 진행
정리	11:00~12:10(70분)	○주변 정리 및 학교로 이동	학교	

## ○ 놀이마당 안내 (마을활동가 진행)

마당	활동내용	장소	운영 코너
문화마당 (노란깃발)	장미원의 보물을 찾아라	장미원	5마당
	계양산의 지킴이 나무를 찾아라	목상동 솔밭	3마당
옛이야기 (빨간깃발)	징매이고개	장미원입구 정자	2마당(A,B)
	장사굴 이야기	피고개 가는길	2마당(C,D)
	목상동 이야기	피고개 가는길	2마당(E,F)
생태놀이 (파란깃발)	솔방울 컬링	장미공원	3마당
		목상동 솔밭	3마당



## 4 활동 모습



다함께 학교에서 출발!



〈문화마당〉 장미원의 보물을 찾아라





〈생태놀이〉 솔방울 컬링



피고개 가는 길



〈옛이야기〉 목상동 이야기



〈옛이야기〉 계양산 장사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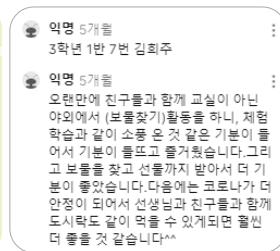
드디어, 목상동 솔밭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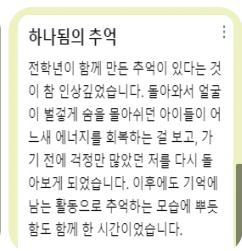
학부모회 〈추억의 보물찾기〉



패들렛에 행사 후기 남기기



학생



교사

### 5 행사를 마치며

〈계양산 품에 안기기〉를 통해 우리는 계산교육공동체의 숨겨진 저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서로의 완주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모두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다.

또한 이번 행사는 지역교육청과 마을활동가의 지원으로 다양하고 알찬 체험 중심 마을연계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학생들의 참교육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컼다고 생각한다.

〈계양산 품에 안기기〉는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계양산이라는 대자연 속에서 위로받고, 계산교육공동체의 단합된 힘을 통해 우리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행사였다.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나와 너를 넘어 함께 가는 교육공동체

# 인천금마초등학교





## 나와 너를 넘어 함께 가는 교육공동체

학교명	인천금마초등학교	작성자	교사 우란
중점과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세부과제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주제영역	마을을 넘나들며 배우는 교육과정 운영		
참여주체	학생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과 함께 빛깔을 입혀가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li> <li>• 함께 하는, 학교에서 만나는 체험 활동을 통한 따뜻한 감성 기르기</li> </ul>		

### 1 마을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생태학습을 통해 따뜻한 감성을 길러요

#### ○ 마을과 함께 빛깔을 입혀가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만들어 주는 틀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시대를 여는 일은 행복한 학교 교육에서 시작된다. 학교 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학생들이 서로 함께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남을 향한 배려와 봉사, 진정한 나눔을 행하면서 함께 배워 나갈 때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찾아 학교 특성에 맞는, 학년 특성에 맞는 빛깔을 입혀가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장 발전에 힘쓰고자 한다.

#### ○ 마을과 함께, 학교에서 만나는 체험 활동을 통한 따뜻한 감성 기르기

본교는 주거지 이동이 잦고 균무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군부대 자녀들과 영유아기 학대 및 방치로 불안한 정서 상태를 보이는 학생이 있는 보육원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다. 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늘 고심하고 노력하였으며 그중 하나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생태학습, 체험학습 등이다. 배움의 현장을 학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온 동네(지역사회)로 넓혀보고자 한다.

#### ○ 학교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의 한계

2022학년도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주체가 면대면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면 교육과 더불어 온라인 화상회의(zoom) 활용, 유튜브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도 활성화하였다.

본교는 학생수가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도 조심스럽게 운영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멈추었던 대면 체험활동의 범위를 학교안에서 학교밖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양한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여러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다모임을 통해 그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 2 실천 사례 – 온·오프라인 교실이 되다

### ○ 마을을 넘나들며 배우는 빛깔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주제	구분	내용
음악을 만나다	국악교육	1~2학년은 국악동요와 소고치기, 3~4학년은 민요와 장구 장단치기, 5~6학년은 국악감상과 장구 장단에 맞추어 민요부르기 수업을 학년 연계성을 두고 실시
	악기연주	3학년에서는 학년 배움악기를 리코더로 정하고 다양한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음악적 감수성을 키움
놀이에 빠지다	놀이 학습	1학년 연극이랑 놀아요, 2학년 북적북적 책놀이, 1~2학년군 우리나라 전통놀이의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고 전통놀이 방법을 하나씩 익히며 체험함
환경을 생각하다	텃밭가꾸기	5~6학년군은 큰 화분을 실외에 두고 상추, 토마토 등을 직접 재배함. 재배한 상추, 토마토 등을 급식 시간에 시식하는 활동을 통해 식물의 중요성 및 생태환경에 관심을 갖는 계기 마련
	원예활동	1학년의 다육정원만들기, 2학년의 가을꽃을 이용한 꽃바구니 만들기, 3학년의 나만의 미니 정원 만들기
함께 하다	과학축제의 날	학년 별 특성에 맞는 과학활동체험의 날
	친구사랑주간	5학년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과와 화해의 주간 운영으로 친구와 부모님께 함께 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기
	문화예술공연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교육, 찾아가는 사이버폭력예방 교육
마을 지원을 학교 안에서 만나다	마을연계	1, 2학년은 전래놀이 활동, 3학년은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4학년은 목공체험과 수제청 만들기, 5학년은 쓰레기난 어떻게 처리할까, 6학년은 놀이연극을 학년별 특색에 맞게 교과를 재구성하여 활동함
다른 나라를 이해하다	다문화교육	1학년 여러 나라의 악기 체험, 2학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의상, 전통놀이 체험, 4학년은 세계 음식 문화와 식사 예절, 6학년은 다양한 문화와 세계유산의 중요성을 알고 관련 체험활동을 함. (대만의 쭁즈, 인도네시아 바틱) 학년별 연계성을 두고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여 이해의 폭을 넓힘

### ○ 활동 모습



### ○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따뜻한 감성 키우는 날

아침맞이, 경어쓰기를 통한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학생 인권 존중의 생활교육 프로그램,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애플데이 주간 등 전교생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윤리적 생활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전에는 부평아트센터, 인천학생문화회관 등을 찾아가 관람하기도 하였으나 2022학년도에는 학년, 학년군 단위로 거리유지를 하며 소규모로 학교로 찾아오는 초청공연과 학교 자체 행사를 진행하였다.

함께 하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과학 체험의 날	애플데이주간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바늘 침대 체험(마그누스 컵 비행기, 전류 레이스, 공기 대포 체험 활동 등)	애플데이행사(친구사랑 사행시 짓기, 사과편지 쓰기)

### 3 교육과정 설계 시 고려 사항

마을연계교육과정 재구성 시 교과 분석, 학년별 발달단계,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의미한 활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코로나19와함께 하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년별, 단계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 4 마치며

학생들은 미래의 희망이며 미래를 살아갈 주인공이다. 학생들이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코로나라는 사회적 특수정으로 인해 남과 함께 하는 활동이 줄어들고 더불어 생활하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더욱 이기적이 되기 쉬우며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쉽다. 이러한 때에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다모임 문화를 통해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사들의 고민이 교육과정 속에 더 녹아 들어간다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본교 학생들의 감수성과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들의 행복한 교육활동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이다.

배움 중심의 수업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 인천남동초등학교





##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학교명	인천남동초등학교	작성자	교사 차재준
중점과제	세계시민교육	세부과제	배움 중심의 수업
주제영역	배움을 디자인하는 교육공동체		
참여주체	학생, 교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성장의 기회 공유하기</li> <li>교실 구성원의 상호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한 의미 있는 수업 만들기</li> <li>발표와 동료 피드백을 통한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갖추기</li> </ul>		

### 1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성장하는 우리

#### ○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

교사로 임용된 지 8년, 교육경력 6년 동안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늘 고민했다. 좋은 교사의 조건은 많을 것이다.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한 교사, 학급 경영이 철저하고 문제없이 한 해를 무사히 보내는 교사, 빈틈없는 수업 준비로 완벽한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 그중 나의 주된 고민은 ‘수업’이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수업 시간에 가르치고자 하는 교과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이다. 시간이 흐르고 풋내기 교사였던 내가 차츰 나만의 교수 방법이 하나둘씩 자리 잡고 있다고 느끼던 즈음, ‘올해는 아이에게 수업 때문에 화를 낸 적이 없구나.’를 깨달았다. 한 아이가 자신이 조사하고 싶다고 말하는 나라의 이름이 어찌나 길던지 반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문득 깨닫게 된 것이다. 나의 수업은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 ○ ‘배움’으로 내딛는 첫걸음

아이들과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 가장 기대되는 시간은 첫 시간이다. 우리 학교는 주제마다 ‘배움 노트’를 만드는데 ‘주제명’과 ‘big idea’를 보고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을 생각해보게 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지에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아이들의 발표 내용을 듣다 보면 동료 교사 협의를 통해 설계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아이들의 입에서 척척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교사의 재량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은 필요하지만 말이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누군가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들이 정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교과서의 목차를 읽어보고 무엇을 배우게 될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과서라는 이미지는 아이들에게 ‘이미 배울 내용이 정해져 있고, 너희는 자신의 ‘배움’이 아닌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준다. 이와 반대로 배움 노트의 빈 표지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교사의 ‘가르침’이 아닌 아이들의 ‘배움’으로부터 주제를 출발하게 해준다.

###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을 공부하고 싶은 아이

새로운 주제를 출발하고 나서 수업의 세부적인 내용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간다. 주제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21명의 아이들이 발표한 내용에는 생각보다 많은 방향과 핵심 키워드가 담겨있다. 그러면 교사인 나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사고 방향과 핵심 키워드를 동료 교사와 함께 설계한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이정표를 제시한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정한 기준 안에서 자료를 탐구하고 정리한다. 친구들과 탐구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신만의 교과서를 써 내려가며 자신의 스타일대로 성취기준에 도달한다. 아메리카의 ‘멕시코’가 아닌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으로 공부하고 싶은 아이처럼 ‘가르침’이라는 앞 사람(교사)의 뒷모습이 아닌 ‘배움’이라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앞 사람(교사)과 손잡고 나란히 가보는 것이다.

## 2 다음에서 어울림으로, 우리는 세계 시민

### ○ 프로젝트 소개

우리 학년이 준비한 6학년 2학기 1주제는 < 다음에서 어울림으로, 우리는 세계시민 >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한 ‘정체성’에 대해 탐구하는 주제이다.

### ○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한 이유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조사하고 그로 인해 달라지는 인간의 생활을 탐구해야 한다. 탐구가 필요한 주제인 만큼 다양한 자료 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학생들이 대륙별 나라의 전문가가 되어 잡지를 제작하고 함께 준비한 자료를 공유하여 흥미로운 탐구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탐구 결과는 학생들이 선택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하도록 구성하여 학습한 내용의 내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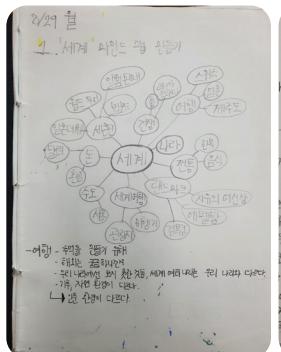
### ○ 프로젝트 수행과제1 ‘매거진 The traveler’

**1 수행과제1을 시작하며:** ‘세계’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질문했다. 아이들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각 나라는 고유의 맛있는 음식, 멋있는 풍경, 우리나라와 다른 건축물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이번 주제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질문을 했다. 아이들은 각 나라에 대한 소개문을 만들고 그 내용으로 여행을 가면 좋겠다고 했다. 각 나라에는 어떤 소개문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① 지도, ② 음식, ③ 언어, ④ 전통놀이, ⑤ 랜드마크(건물) 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소개문을 만들 것인지 질문을 했다. 사진도 넣고, 퀴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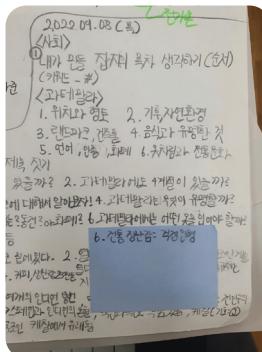
넣겠다고 했다. 놀이를 영상으로도 찍고 각 나라의 특징을 발표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었다.

**② 잡지에 대한 분석:** 다양한 종류의 잡지를 미리 준비했다. 잡지라는 소재가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생소한 분야였다. 차라리 어렵게 돌아가기보다 자료를 제공하여 잡지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종류의 잡지를 제시한 후 아이들이 직접 읽어보면서 공통적인 특징을 찾았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 세계 잡지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개요를 작성하며 마무리 지었다.

**③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습:** 잡지를 제작하기 위해 '미리 캔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잡지를 제작하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아이디만 입력하면 저장과 불러오기가 쉽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를 선택했다.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기 위해 실과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제작했고, 이후에는 아이들이 다른 기능까지 직접 활용하여 잡지를 제작했다.



가. 마인드맵 만들기



나. 잡지 개요 짜기



다. 잡지 만들기

### ④ 수행과제 과목별 세부 내용

수행 과제	학습 내용
1. 매거진 The traveler	<p>국어</p> <p>유명 유튜버의 세계 여행프로그램을 보고 특징과 내용의 타당성 구분하기 다양한 매체 중 하나인 잡지 살펴보고 구성의 특징 찾아보기 -나만의 스타일 정하기: 각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는 소개글 쓰기 -설명하는 글의 특성은 무엇인가?</p>
	<p>사회</p> <p>세계지도에서 다양한 나라의 인문, 자연환경의 특징 알아보기 여러 대륙과 대양 알아보기 각 대륙에 속한 나라 살펴보기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떠한가?</p>
	<p>도덕</p> <p>우리가 사는 세계는 공정한가? -공정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p>
	<p>창체</p> <p>세계잡지 전시회 개최</p>
	<p>미술</p> <p>여행 마그넷 만들기 / 컬러링 지도 만들기</p>
	<p>체육</p> <p>농구의 기본 기술 익히기 / 목표물에 정확히 던지기</p>

### ○ 프로젝트 수행과제2 '톱파원 25시'

**① 수행과제2를 시작하며:** 아이들이 만든 잡지를 반별로 공유하면서 대륙별 나라의 특징에 대해 탐구했다.

탐구 내용 중 수상가옥과 추운 지방의 전통 의상은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관계에 대해 탐구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후에는 건조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진흙집과 천막(게르)에 대한 이야기, 중국에서는 사천지방에서 왜 마라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생각해 보며 인간의 생활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주는 영향에 대한 탐구 활동이 시작되었다. 다른 활동보다 탐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활용했다.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인간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해석하는 것이 힘들었다.

**② 발표 자료 제작하기:** 잡지를 만들 때 활용했던 개요 짜기를 이용했다.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알았고 미리 캔버스로 본인들의 잡지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발표 자료 제작에도 필요한 자료를 바로 준비하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발표 수업의 의미는 자신이 준비한 발표 자료를 머릿속에 이미지화시켜 체계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우수 발표자의 사례를 함께 보고 발표자들의 공통점을 찾아 발표할 때 필요한 자세를 중점적으로 연습하게 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고 탐구한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차츰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 발표 자료 개요 짜기 및 탐구하기



나. 발표 자료 제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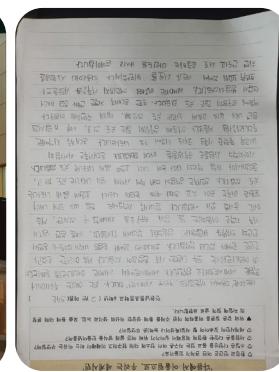


다. 발표 연습 및 피드백

**③ 발표하기 및 주제학습 마무리:** 강당에 모여서 발표를 했다. 반별로 발표 방식이 전부 달랐다. 적극적인 반의 경우 연극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웃음과 집중을 끌어냈다. 또 다른 반의 경우 영상 편집을 통해 뉴스 인터뷰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퀴즈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한 반도 있었다. 동료 교사와 함께 설계한 교육과정은 반에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수업으로 탄생했고,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후 아이들은 교실에서 자기 평가와 함께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며 주제를 마무리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탐구한 방법과 내용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가. 발표하기



나. 주제 마무리하기

#### 4 수행과제 과목별 세부 내용

수행과제	학습내용
2. 톡파원 25시	<p>국어</p> <p>톡파원 25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주제 구상하기 주제에 맞는 매체 자료 선정해서 자료 찾아보기 모둠별 역할(PD, 진행자, 톡파원 등) 나누고 내용 구성하기 톡파원 25시 발표하기</p>
	<p>사회</p> <p>우리나라와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 살펴보기 –우리 모둠이 조사하는 나라의 유명 인물, 전통놀이 조사하기 이웃 나라의 생활 모습 조사하고 이해하기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의 특징과 우리나라와 주고받는 영향 알아보기</p>
	<p>체육</p> <p>티니클링 세계 전통 춤 만들어 모둠별 발표하기 / 세계의 다양한 특징 '몸으로 말해요'</p>
	<p>실과</p> <p>PPT, 영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만들기</p>
	<p>미술</p> <p>톡파원 25시에 필요한 소품 만들기 / 프로그램북 만들기</p>
	<p>음악</p> <p>바누와 세계음악 기억합주하기 / 세계 여러나라의 전통 음악 찾아 노래 부르기</p>
	<p>영어</p> <p>영어로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글쓰기 / 영어 편지쓰기 형식 알아보기</p>

#### 3 프로젝트 수업을 마치며

##### ○ 교육과정의 창의적인 설계?

처음 교육과정을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학교와 교실의 학생들 상황에 맞는 수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설계를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수업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서 나에게 교육과정 재구성이 어렵게만 느껴졌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제의 실천사례는 나에게 새로운 교육과정 설계의 경험을 느끼게 해주었다.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가 사고의 초점이 되었고, 자료 조사 및 탐구 활동 그리고 발표라는 보편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실행이 이루어졌다.

##### ○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

이번 주제에서 나라의 선정과 잡지에 들어갈 내용, 발표 방법 등은 아이들이 직접 정했다. 발표 자세나 발표 자료의 구성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아이들의 호흡에 맞췄다. 동료 교사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수행과제가 정해졌지만 교실 수업에서 아이들과 상호 소통하면서 세부적인 상황들은 교실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아이들의 생각이 반영된 수업은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지속적인 배움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무엇보다 발표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단순히 대본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잡지를 만들 때처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잘 소화해서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위치에 서게 되니 내가 진짜 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선명해진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학교의 시스템이 뒷받침해주기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배움학교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선물과도 같다.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코로나19 안녕~ 우리는 학교 밖 탐험간다

# 인천도림초등학교





## 코로나19 안녕~ 우리는 학교 밖 탐험간다

학교명	인천도림초등학교	중점과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급별	초등학교	학년/과목	3학년/초등
세부과제	복숭아마을에 사는 꾸러기 탐험대의 학교 밖 탐험 이야기	작성자	교사 박소영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밖 탐험 떠나기 전</li> <li>3학년 꾸러기 탐험대 학교 밖 탐험 도전~</li> <li>학교 밖 탐험을 다녀 온 후</li> </ul>		

### 1 우리학교 교육과정의 꽃 학교 밖 탐험

우리학교에 처음와서 학교 밖 탐험을 알게 되고 유레카를 외쳤다. 교실 속 교육의 한계를 느끼던 중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키우기 위한 찐 교육과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이들이 탐험할 장소를 선택하여 계획하고 서로 의논하며 수정하고 직접 도전하는 과정이 펼쳐지는 교육과정이다. 학년별로 위계를 가지고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며 학년교육과정과도 긴밀하게 얹혀 아이들의 생각과 힘으로 풀어가는 멋진 교육과정이다. 누군가 우리학교만의 교육을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학교밖 탐험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학교 교육과정의 꽃 바로 학교 밖 탐험이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3학년 꾸러기 탐험대의 학교 밖 탐험 <남동구 탐험>을 같이 떠나보자.

### 2 꾸러기 탐험대의 학교 밖 탐험 준비

#### 학생의 준비

##### 1 탐험 장소 정하기

장소를 정할 때 모둠별로 가고 싶은 장소를 정하라고 해도 좋으나 모둠의 의견이 일치 되지 않을 경우 곤란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1학기에 <남동구 탐험이야기>를 통해 배운 남동구의 여러 장소를 떠올리며 아이들이

가고 싶은 장소를 칠판에 적어 본다. 아이들은 가고 싶은 장소를 선택하고 3~4명 무리를 지어 준다. 한 장소가 인기가 많아 인원이 많을 경우엔 2모둠으로 나누어 정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반은 5개의 장소가 선택 되었다.

## ② 탐험 과정 토의 및 계획하기

장소가 정해지면 탐험 과정에 대해 토의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여러 차례 갖는다. 보통 탐험일을 기준으로 2주전에 시작하면 좋다. 1주일에 3회 정도 모둠을 이룬 아이들에게 토의할 시간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의견이 달라서 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또 도시락을 싸고 뜻자리를 가지고 갈 건지 근처 식당에서 사먹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당연히 교통편도 생각을 하는데 3년전에는 인천대공원을 자전거로 탐험한 적이 있었다. 이번엔 우리반 모두 버스를 이용한다고 했다. 3학년 친구들에게 차근히 계획 할 것을 알려주고 계획서를 작성하게 해서 서로가 확인하게 한다. 1주일 정도 지나면 종이는 너털너털해진다. 그만큼 보고 또 보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 아이들에게 찐 공부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조금씩 다른 형식으로 계획서를 차근히 3번 써 보았다. 고학년 친구들은 한 번만 말해도 금방 움직여지고 이해가 하지만 3학년은 버스도 한 번도 안타본 학생이 있을 정도이니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 ③ 탐험 계획 발표하기

여러 번 고쳐 쓴 계획서를 가지고 다른 반 친구들 앞에서 모둠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활동은 글로 적혀있는 계획을 머리에 넣어 설명하는 활동으로 탐험일에 자신있게 도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발표 때 어느 버스정류장인지 알고 어느 방향에서 타는지를 묻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발표하면서도 설레고 먹을 생각에 신나는 아이들이다.

## ④ 그림자 선생님께 탐험일 전날 인사 및 문자 드리기

학교에서 배정한 안전을 위한 그림자 선생님께 각 모둠과 연결하여 연락처를 확인하고 계획서 발표 후에 문자를 보낸다. (여기서 그림자 선생님이란 학급담임을 포함하여 학부모의 사전 신청으로 이루어진 분들이며 학교 밖 탐험시에 아이들에게 의견을 내지 않고 안전을 위해 함께 다니는 교사를 말한다.)

예) 저는 3-1 000입니다. 저희는 인천대공원을 탐험할 예정이며 탐험대원은 000,00,00,00입니다. 내일 3-1교실에서 8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보내면 대부분 그림자 선생님께서 답장을 주신다. 이제 준비 끝.

### 교사의 준비

- 학교 밖 탐험 전체 계획을 3주전 세워둔다.
  - 소요 비용을 계획하여 준비물을 미리 구입한다.
- \* 3학년 꾸러기 탐험대 학교 밖 탐험 소요 비용(학급당 10만원= 3개반 30만원)
- 아이들 개인간식: 2000원, 사진 인화 비용 30000원, 선생님 이름표 30000원
  - 그림자 선생님들과 모둠 연결하여 배정하기

- 그림자 선생님들에게 유의사항 안내 및 계획서 전달하기
- 간식 포장하기, 모둠 발표 및 계획서 점검하기 등

### 학교 및 학부모님의 준비

- 그림자 선생님으로 지원요청하기, 참여하기
- 전체 그림자 선생님의 모임 정해서 학교 밖 탐험 안내하기
- 당일 취소될 수 있는 그림자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 전담교사 등 시간 비우고 대기하기

## 3 학교 밖 탐험 도전하기

### 학교 밖 탐험 도전 과정 – 장수동 은행나무 모둠

계획을 세우고 과정을 익힌다고 해도 학교 밖에 나가 실제로 걷고 버스 타고 탐험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아침에 떠나기 전 만난 친구들은 잠을 잘 못잤다고 한다. 혼자 버스도 한 번 안타본 친구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공부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다녀보겠다고 긴장을 했을 터이니 재미와 흥미뿐 아니라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깨고 이겨내어 같이하는 것 의미있지 않은가?



학교 밖 탐험 도전 과정 - 장수동 은행나무 모둠

이번에 내가 그림자 선생님으로 함께한 모둠은 장수동 은행나무를 가고자하는 아이들이었다. 버스를 어느 방향에서 타는지 또 버스에서 언제 벨을 눌러야 하는지, 내려서 어디로 걸어야 하는지 등 아이들에게는 다 궁금한 일들이다. 배움의 현장이다. 이미 내 머릿속에 다 그려져 알고 있는 길을 그날 무려 1시 40분이 넘게 걸어 장수동 은행나무에 도착했다. 그 과정에서 주변을 빽빽 돌기도 하고 왔던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했으며 정 힘들어 지자 주변 어르신께 물어 보며 길을 찾아 갔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용기와 판단이 필요했으며 우리 아이들은 책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배우고 익혀나갔다. 한 번 가보니 오는 길은 비교적 여유롭게 길을 찾았고 점심을 먹을 때는 한껏 신이나서 잘 먹었다. 많이 걸었으니 그만큼 배고팠으리라. 학교에 도착하여 그림자 선생님들과 카톡으로 사진과 평가회를 간단히 하였다. 모두들 유익한 활동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탐험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시고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그림자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



## 4 학교 밖 탐험을 다녀온 후

우리는 다녀온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둠별 탐험 결과 보고서를 만들고 발표도 하였다. 또 사진에 미술과 통합하여 사진 미션을 주어 개인별 사진 전시회도 열어 나누었다.

### 1 3학년 꾸러기 탐험대의 탐험 결과 보고서

그림자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진과 계획서와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녀온 탐험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4절지 도화지에 모둠별 사진을 인쇄하여 주면 아이들은 신이나서 결과 보고서를 함께 만든다. 소감도 쓰며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웃으며 정리한다.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친구들 앞에서 소감과 함께 발표하였다. 자연스레 힘든 점도 이야기하고 웃긴 일도 이야기 나눈다. 또 다른 모둠의 이야기를 쑥 빼져 듣게 된다. 산 교육이 이것이다.



탐험 보고서 만들기



탐험 보고서 및 발표

## 2 학교 밖 탐험 사진 전시회

사전에 미술교과 통합으로 학교 밖 탐험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고 1장을 선택하여 제목을 짓고 이유와 설명을 쓰며 전시회를 열기로 하였다. 사진의 제목도 조금은 고심해서 쓰기로 했는데 어느 멋진 사진 작가의 사진전 못지 않게 재미있고 재치있는 제목들이 있었다. 사진 전시회 관람하는 태도도 안내하고 마음에 드는 작품에 꽃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친구들의 작품에 서로 피드백 해주었다. 하나의 활동으로 여러 교과가 어우러지는 융합과 통합이 이렇게 아닐까싶다.



## 학생자치회 운동회 TF팀



## 학생자치회 단체사진

### 3 학교 밖 탐험 평가회

동료 교사와 같이 했던 그림자 선생님과 사후 평가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활동에 그치지 않고 소감을 나누며 다음을 위해 더 다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평가회를 하면서 힘들지만 이 활동이 계속되어야함을 깨닫게 되기도 한다. 도와주신 학부모님들도 내년에 다시 손내밀어 도움주시리라 여겨진다. 우리아이들이 여기서 배운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말이다.

 5 **한마디**

학교 밖 탐험을 할 때마다 매번 다른 일이 생기고 다시 대처하는 능력이 생긴다. 완벽하게 계획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 배운다. 다만 계획을 세우고 가면 덜 힘들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된다. 이번 활동에서는 급한 마음에 차가 서자 번호를 안보고 타는 아이도 있었으며 휴대전화를 화장실에 두고 오는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친구와 전화를 하며 모둠 친구들이 버스를 잘못 탄 친구를 달래고 다음 정류장에서 만나 다시 학교로 돌아왔으며 휴대전화도 연락을 해서 다시 찾게 되었다.

교육과정의 진한 배움과 살아있는 배움이 있는 학교 밖 탐험!

우리 학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우리는 복승아 마을에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민주적 학교 공동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학교

# 인천동암초등학교





##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학교

학교명	인천동암초등학교	작성자	교사 이준희
중점과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세부과제	민주적 학교 공동체
주제영역	학생 자치, 교직원 자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강화		
참여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초 다지기</li> <li>바르미 프로젝트? 학생 전교 다모임? 일단 모여라! 모여서 이야기하자!</li> <li>교사들도 모이자! 교육문화공간, 마을엔!</li> <li>1년간 학교 자치를 운영하며</li> </ul>		

### 1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 자치

#### ○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초 다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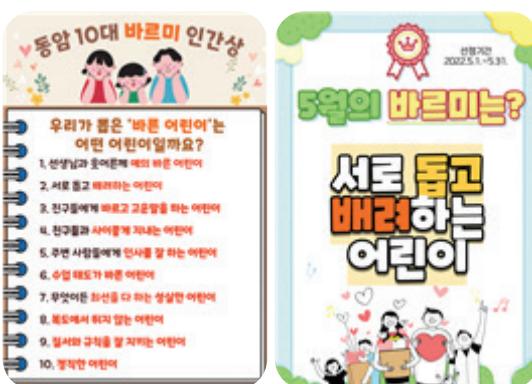
인천동암초등학교는 동암역과 간석오거리역 사이에 위치한 20학급 남짓한 크기의 조그마한 학교다. 우리 학교는 행복배움학교로 지정된 2018년부터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행복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부회장 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고, 이를 바탕으로 동암초등학교만의 특별한 학교 자치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학교 내부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나 2020년과 2021년은 학생들의 등교 일수 조정과 단체 활동 제한 등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학생 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교육 공동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표성을 띤 학생들의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자치와 교육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본교 교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결과, 본교에서 진행중이던 ‘바르미 프로젝트’와 더불어 ‘학생 전교 다모임’을 새롭게 만들어 연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 2 바르미 프로젝트? 학생 전교 다모임? 일단 모여라! 모여서 이야기하자!

바르미 프로젝트는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한 교내 프로젝트로,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써 학급 내 바른 어린이를 뽑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였다. 정·부회장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관계로 투표를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대표 선출의 경험도 제공해주며, 인성 교육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공동체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교직원 회의를 통해 2022학년도에는 바르미 프로젝트를 학교 자치와 관련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2022 바르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른 어린이'의 의미를 전교생 설문을 받아 '동암 10대 바르미 인간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인간상에 정리된 기준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자치시간(자율)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바르미를 선발함과 동시에 선발된 바르미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학교장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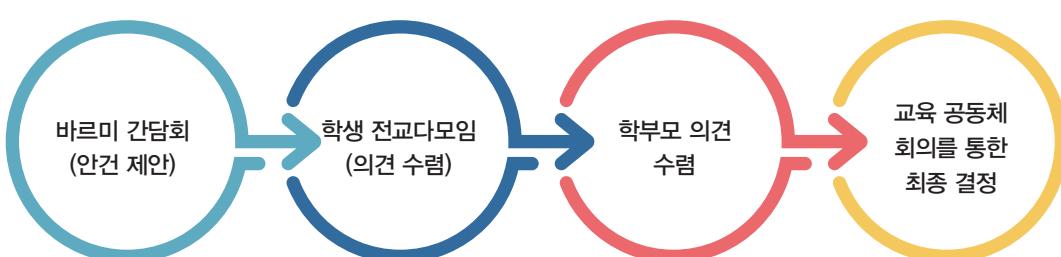


동암 10대 바르미 인간상 및  
교실 개시용 바르미 선발 기준 포스터



학교장 주관 바르미 간담회—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이를 통해 교장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과 요구 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이 목소리들은 학생 전교다모임의 회의 주제 후보로 발전할 수 있었다. 계획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학교장 주관 바르미 간담회에서 나온 학생들의 목소리는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제에 전교생이 투표를 실시하였고 결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학생 전교다모임을 실시하였다. 단, 우리 학교가 생각하는 학생 전교다모임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었다. 바로, '원하는 학생은 누구든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자!'였다. 특정 동아리나 대의원이 아니며 학교의 임원도 아닌, 해당 주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리 제시된 전교다모임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



학생 전교다모임 주제 결정 투표



학생 자치 전교 다모임 운영

### 3 교사들도 모이자!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2022학년도에 모인 것은 학생뿐만은 아니었다. 교내에 민주적 회의 문화가 확산되자 교사들 또한 함께 모여 학생 지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또한 학교형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조직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각종 연수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7월은 교내가 아닌 ‘교육문화공간 마을엔’에서 문화복합공간 탐방과 함께 1학기 교육과정 반성, 학교 자치 돌아보기 및 2학기 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본교는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교육문화공간 방문을 통해 학교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으며, 분과별 운영 방안 협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틀을 계획할 수 있었다. 또한 2학기 진로 축제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고, 오는 11월 인근에 위치한 동암중학교 및 학부모회, 행복배움학교 교원 네트워크, 마을 등과 함께하는 진로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분과별 운영 방안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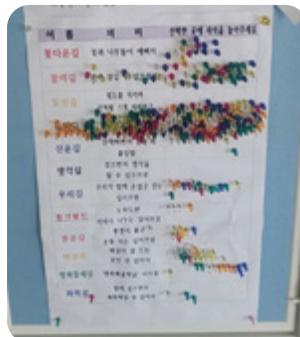
교육문화공간 탐방 및 워크숍

### 4 1년간 학교 자치를 운영하며

2022학년도 학교 자치를 운영하며 교육 공동체의 노력으로 많은 안건들이 결정되었다. 현장체험학습 장소, 정·부회장 제도 시행 여부, 학년별 체육대회 운영 방법, 후문 개방 시간, 급식실 잔반을 줄이는 방안, 가림막 철거 여부 등의 다양한 안건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지만, 그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학교 숲 이름 공모였다. 올해 초 우리 학교에는 학교 숲이 조성된 후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거닐 수 있는 둘레길이 만들어졌다.

둘레길을 애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바르미 간담회에서 이를 부르는 호칭에 대한 안전이 제안되었고, 이를 학생 전교다모임에서 의논해보기로 했다.

학생 전교다모임에서는 총 12가지의 명칭이 공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공동체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학생 설문 결과 ‘동암길’이 압도적인 비율로 높은 득표를 보였으며, 학부모와 교직원 설문 결과 ‘행복둘레길’이 가장 높은 투표수를 기록했다. 그 결과 교육 공동체 회의를 거쳐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동행길(동암 행복둘레길)’로 둘레길 이름을 결정하였으며, 학교에서는 현재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매일 아침 활동 시간 및 점심 시간을 활용해 걷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둘레길 이름 공모



동행길 걷기 프로젝트

지난 1년간 학교 자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한 결과, 학교 자치는 단순히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는 사실과 성취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학교의 다양한 부분에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실제로 이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낸 의견이 직접 수용이 되는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체험하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수차례 진행된 학생 전교 다모임을 통해 자신이 내고 싶은 의견을 근거를 들어 발표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도 인천동암초등학교의 작지만 강한 자치 활동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선생님! 이번 달에는 전교 다모임 언제 해요?’라는 학생들의 천진난만한 질문은 학교를 발전시켰고, 학생과 학부모를 성장하게 만들었으며,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켰다. 서로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학교는 현재도 여전히 발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리모델링 중이다.



민주적 학교 운영

행복배움학교의 꽃 학생자치문화가 활짝

# 인천부평북초등학교





## 행복배움학교의 꽃 학생자치문화가 활짝

학교명	인천부평북초등학교	작성자	교사 박정혜
중점과제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세부과제	민주적 학교 운영
주제영역	학생자치		
참여주체	학생, 교직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 가까이 학생회와 함께하는 학교 생활</li> <li>•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함께하는 참여중심의 공간 혁신 프로젝트</li> <li>• 유기적 관계로 이어지는 학생 자치 활동과 교육과정</li> </ul>		

### 1 행복배움학교의 꽃을 피울 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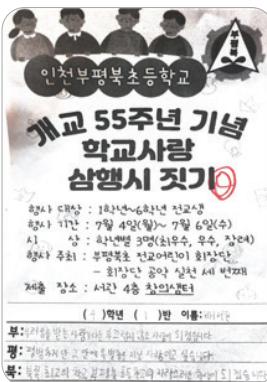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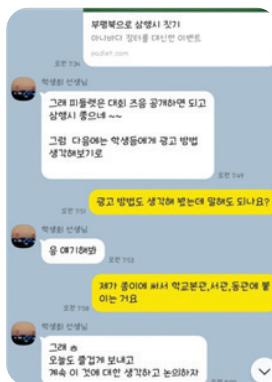
‘놀면서 배우는 감수성 교육’으로 행복배움학교 첫 해를 시작하여 지난해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창의적 학급 운영에 온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은 짧은 기간 동안 학교 문화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아이들은 학교에서 얼마나 행복을 느꼈을까?’ 행복학교 워크샵과 평가를 통해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 학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아,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체험이나 활동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실제로 학생들과 수업을 해보면, 박물관, 놀이공원, 영화관 등 기본적인 체험활동도 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 하물며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경험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자율성이 발휘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회는 선생님들의 지지 아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학교 행사를 준비하여 운영하고 관련 위원회에 참석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하였다. 아이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나가는 활동에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였다. 행복학교의 꽃은 학생 자치활동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행복을 찾아 나선 부평북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늘 가까이 학생회와 함께하는 학교 생활

바로 옆 친구들의 고민과 불편을 해결해주는 활동은 친구들과 소통하며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의미있는 활동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비에 우산이 없어 당황하는 친구들을 위해 예비 우산을 준비하고, 급식 시간에 먹고 싶은 음식을 발견하는 기쁨을 주는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개교기념일에 매년 했던 재미없는 활동은 그만 멈추고 모든 학생이 신나게 참여할 수 있는 삼행시 짓기를 기획하는 등 우리의 일상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다.

### 1 개교기념일 기념 학교사랑 삼행시 짓기

- 학생 자치회에서 행사(주제 선정, 행사 진행, 심사, 시상 등)를 주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 관심을 갖는 기회를 마련
- 주제는 '부평북'으로 정하여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시 짓기 행사를 기획함.
-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의미 확산 부여함.
- 학년별로 3명 선정하여 시상하며, 심사위원은 학생회 임원으로 함.



비대면 카톡 협의

삼행시 짓기 학생작품

### 2 우리가 정하는 행복한 급식

- 우리가 먹고 싶은 메뉴를 직접 정하고 메뉴를 식단표에 반영시켜 모두가 급식시간에 즐겁게 참여하여 자부심을 느끼는 기회를 마련함.
- 전교생이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 스티커를 붙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영양 선생님의 뒷받침으로 최종 선정된 음식 급식 식단에 여 급식에 대한 반영함.
- 매달 실천하여 꾸준한 관심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줌.



반영된 급식

### 3 선생님 사랑해요

-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선생님의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강구함.
- 전교생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방법을 선정함.
- 학생이 직접 만든 현수막을 게시하고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함.



우리 스스로 직접 만든 현수막

### 4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가짐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구상함.
- 캠페인 피켓 도안 제작, 관련 음악 및 유통을 계획함.
- 캠페인 주간을 정해 아침활동으로 신나는 음악과 함께 활동을 실행함.



### 5 우산을 빌려드려요

- 기상이변으로 갑작스러운 비가 자주 오는 현상이 발생하며 학생들이 하교를 힘들어함.
- 비를 맞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 수렴.
- 우산을 기부 받아 1층 현관 3군데에 비치하여 학생들의 하교 걱정을 덜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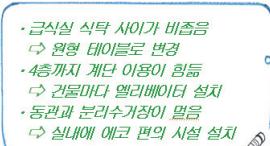
우산을 빌려드려요

### 3 우리 학교는 우리 손으로-내가 꿈꾸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전체 공간을 미래형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되었다. 미래학교의 중심이 될 학생들의 암과 쉼의 공간 창출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와 지혜를 나누어 학생의 적극적 참여 중심의 공간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자신의 학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을 새롭게 구상하는 경험을 통해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있을 다양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기름.
- ❖ 학교의 주체로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애교심과 민주적인 시민 의식을 기름.

#### ○ 내가 꿈꾸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공간혁신 프로젝트)

학생회 참여 활동	미래학교 공간 실제 탐방	통합협의회 참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협의회)
<p>• 전교생 대상 학교생활에서 개선하고 싶은 의견 수렴 후, 희망하는 학교 시설 의견을 개진함.</p> <p>• 학생 다모임을 통해 개선하고 싶은 점을 반영한 시설을 토의를 통해 구상함.</p> <p>•   • 급식실 식탁 사이가 비좁음     ⇒ 원형 테이블로 변경 • 4층까지 계단 이용이 힘들     ⇒ 건물마다 엘리베이터 설치 • 동관과 분리수거장이 멀음     ⇒ 실내에 애코 편의 시설 설치</p> <p>의견 낸용(일부 내용 발췌)</p>	<p>• 학생 참여 활동이나 간접 경험에서 지각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함.</p> <p>• 더 알고 싶거나 아이디어가 부족한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공간 선정 및 탐방 예정.</p> <p></p> <p>미래학교 공간 벤치마킹</p>	<p>• 그린스마트 위원회의 학생 대표로 참여하여 전 교생의 의견을 대신하여 개진함.</p> <p>• 개진된 내용은 관련 설계 도면에 적용됨.</p> <p></p> <p>그린스마트위원회 참여</p>

### 4 학생 자치 문화는 교육과정의 주인으로 이어집니다.

학생 자치 활동은 교육과정과 깊은 관련 속에서 진행되었다. 주제에 따라 교육과정 내에서 먼저 시작하여 자치활동에서 완성이 되기도 하며 자치활동을 끝낸 후 교육과정에서 구체화 시켜 완성하기도 했다. ‘학교 사랑 삼행시 짓기’는 학생회에서 먼저 시작하여 교육과정에서 심화시키는 사례가 되었고, ‘내가 꿈꾸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처음부터 프로젝트 학습으로 교육과정에서 출발하였고, 의견수렴 과정은 순수한 학생 자치로 해결하였으며, 지금도 진행 중인 과정이다. 특히, 자신이 머무를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은 스스로 직접 아이디어를 생성, 기획, 설계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다.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 공간 변화를 위한 과정은 지금까지 학생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흥미롭고 의미있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공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토의와 토론의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핵심 역량을 뛰어넘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학습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활동명	교육과정 반영	차시	프로젝트 수업
학교사랑 삼행시 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창체 교육과정 재구성</li> <li>응모된 삼행시를 읽고, 느낀점 말하기</li> <li>재미있는 방법으로 시짓기 놀이하기</li> <li>시짓기 놀이, 시화 제작하여 전시하기</li> </ul>	1	<span style="color: orange;">★</span> 우리 학교 역사 알기 우리 학교가 걸어온 발자취를 50주년 기념책, 사진, 선배님 대화 등을 통해 알아보기
내가 꿈꾸는 그린스마트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젝트 수업 기획</li> <li>미래의 학교 상상하기</li> <li>모델하우스로 구현하기</li> </ul>	2	<span style="color: orange;">★</span> 미래의 우리 학교 상상하기 다양한 미래학교 모습 제공하여 마음껏 상상하여 표현하기
선생님 사랑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창체/미술/통합 교육과정 재구성</li> <li>선생님과의 추억 기억해보기</li> <li>감사의 마음 표현을 위한 내용 구상</li> <li>구상한 내용 표현하기</li> </ul>	3	<span style="color: orange;">★</span> 개선하고 싶은 학교 생활 학교 생활을 하며 개선하고 싶은 점을 생각해 보고 의견을 모으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창체/미술/도덕 교육과정 재구성</li> <li>캠페인 피켓, 음악, 율동 계획하기</li> <li>캠페인 활동 계획 및 실행하기</li> <li>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동참하기</li> </ul>	4	<span style="color: orange;">★</span> 내가 바라는 학교 제시하기 개선하고 싶은 점을 고려하여 내가 바라는 구체적 모습 그리기
우리가 정하는 행복한 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과/창체/도덕 교육과정 재구성</li> <li>필수 영양소와 우리 신체 관계 탐구</li> <li>우리가 정한 급식을 먹은 경험 말하기</li> <li>더 나은 급식을 위한 우리의 노력</li> </ul>	5	<span style="color: orange;">★</span> 학교의 공간 혁신 알아보기 친환경 공간 및 미래 교육을 위한 스마트 공간에 대하여 알아보기
		6	<span style="color: orange;">★</span> 공간 설계도 디자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꾸고 싶은 공간 디자인하기</li> <li>디자인한 공간을 표현하는 방법</li> </ul>
		7	<span style="color: orange;">★</span> 모델하우스 만들기 모둠별로 설계도에 맞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전시하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행복한 우리 학교 설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간 설계도 디자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모델 하우스 제작

## 5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궁금합니다.

2022년 행복학교 활동을 통해 전 교직원과 학생은 더불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교사가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던 학생들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되어 의견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깊고 다채로웠다. 그리고 앞으로 생각과 마음을 키우며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 궁금하다. 행복학교 3년차를 이어오며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아쉬운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찾아가며 오롯이 부평북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학생 다모임을 지향하며 올해도 자치 활동의 발자취를 이어가고 있다. 부평북 어린이들이 멋지게 성장해 나가길 응원한다.



민주적 학교공동체

상정 교직원 다모임처럼 따뜻하고, 유쾌하게  
**인천상정초등학교**





## 상정 교직원 다모임처럼 따뜻하고, 유쾌하게

학교명	인천상정초등학교	작성자	교사 정윤희
중점과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세부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제영역	따뜻하고 유쾌한 교직원 다모임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만들기		
참여주체	교직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뜻한 관계 맺기 : 마음의 울림, 행복한 만남</li> <li>• 수평적 문화 조성 :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회의 결과는 꼭 공유하기</li> <li>• 테마가 있는 모임 : 웃음으로 여는 유쾌한 다모임</li> </ul>		

### 1 우리의 생각과 고민

2019년부터 우리만의 색깔로 예쁘게 채색하던 상정 행복배움학교 운영에 걸림돌이 된 것은 코로나19였다. 우리 학교의 자랑인 1인 1악기 교육도, 오케스트라 연주회도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연간 4회 이상 실시하던 진로교육 중심의 학년별 현장체험학습은 교내에서의 체험활동으로 대체되었다. 무엇보다도 교직원 다모임, 교육공동체 협의회 등의 회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활발하던 의사소통도, 집단지성이 이루어내던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힘도 줄어들었다.

‘어떻게 하면 상정 행복교육이 다시 생동감을 가질 수 있을까?’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얻은 2022년 다시 뛰는 상정의 행복교육을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교직원 다모임을 대면으로 따뜻하고, 유쾌하게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 2 우리가 함께 만든 따뜻하고 유쾌한 상정 교직원 다모임

#### ○ 따뜻한 관계 맺기

어느 조직이나 그렇겠지만 학교는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되게 하려면 구성원들이 친밀감 속에서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교직원 첫 다모임에서의 자기소개였다. ‘다’ 급지인 우리 학교에 와서 겪은 슬픔과 어려움, 평생 숙제로 생각되는 다이어트 다짐, 부모로서 공감되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까지……. 교직원 모두가 마음속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게 되자 우리는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되었다.



### 마음의 벽을 헤우는 자기소개

- 최근 관심사 소개하기
- 나를 동물로 표현하기
- 나의 감정을 색깔로 말하기
- '나는 우리 학교에서 ○○을 담당하고 있는 ◇◇◇입니다.'로 소개

예 나는 우리 학교에서 애교를 담당하고 있는 흥길동입니다.

## ○ 수평적 문화 조성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연수에서 '모두가 말하기', '비슷한 시간만큼 말하기'를 배운 적이 있다. 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자신의 의견이 똑같이 존중받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야 민주적인 회의 문화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가 그렇다. 우리 학교의 좋은 점 중에 하나로 교직원들은 다모임에서 누구나, 신규교사도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리고 교직원 다모임에서 나온 회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되었는지 꼭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교직원 다모임 후에 회의 결과가 공유되지 않고 학교경영에 반영되지 않으면 교직원 다모임은 의미가 없으며 추진력을 잃게 된다.



### 이렇게 공유해요!

- 모두가 말하려면 분임 별로 소주제를 나누어서 토의하기
- 토의의 여러 기법 적용해보기(PMI, PPC, 피라미드, 둘 남고 둘 가기 등)
- 다모임 회의 결과는 언제든지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구글 시트 등에 기록하기
- 분임 토의 후 전체협의를 통해 의견을 발전, 조율하기
- 교직원 다모임 회의 결과가 어떻게 학교경영에 반영되었는지 발표하기



### 이렇게 반영해요!(상정 다모임 회의 결과 반영내용)

- |                               |                            |
|-------------------------------|----------------------------|
| • 아침, 점심 도서관 개방 및 열람          | • 급식 시간 학년별 조정(2부제 운영)     |
| • 짹 활동, 협동학습을 위해 교실 책상 칸막이 제거 | • 2학기 학년별 교외 현장체험학습 추진     |
| • 각 교실 및 특별실 무선 청소기 구입        | • 담임 및 체육 교사 버튼식 호루라기 지급 등 |

## ○ 테마가 있는 모임

모임은 즐거워야 지속, 발전할 수 있다. '오늘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모이는 발걸음이 가볍다. 본교는 테마가 있는 다모임을 계획하여 참여하는 교직원이 깔깔깔 웃고 시작할 수 있도록, 다모임에 생각과 마음이 모두 흡뻑 빠져 유의미한 시간이 되도록 운영하였다.



### 다모임 테마

- 행운의 번호 추첨 : 상품 나누기
- 음악이 있는 다모임 : 신청곡과 사연을 DJ가 소개하기
- 골든벨 퀴즈 : 재미와 연수를 동시에 잡기

〈 2022학년도 상정 교직원 다모임 〉

일시	테마	함께 했던 이야기	장소	간식
4.12.(화)	번호 추첨 (상품—감자, 파인애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모임 안내—나눔, 존중</li> <li>• 상정 가족 자기소개—관심사 등</li> <li>• 안건 : 정상 교육과정 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li> </ul>	과학실	샌드위치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아침, 점심 개방 및 열람</li> <li>• 급식 시간 학년별 조정</li> <li>• 2학기 교외 체험학습 추진 등</li> </ul>			

일시	테마	함께 했던 이야기	장소	간식
5.11.(수)	골든벨 퀴즈 (상품—음료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승의 날 표창장 수여</li> <li>• 안건 :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한 지도 방안</li> </ul>	과학실	쿠키세트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원이 다 함께 지도해야 개선됨에 공감</li> <li>• 공통된 지도 방안 공유, 상정 학생 생활 규범 재안내 및 지도</li> <li>• 하교 시 돌봄교실 옆 현관문 개방 및 운동장 스피커 설치 등</li> </ul>			

일시	테마	함께 했던 이야기	장소	간식
6.24.(금)	상정 오케스트라 공연과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배움학교 운영 성과 성찰</li> <li>• 안건 : 2학기 중요 교육활동을 어떻게 운영할까?</li> </ul>	강당	컵과일 과자, 음료수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상담 주간을 1주일로 단축 운영</li> <li>• 학부모 공개수업—작년 줌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 공개가 반응이 좋았음</li> <li>• 가을운동회—학생들의 실제 참여 시간을 늘리고, 즐기는 방향으로 운영</li> </ul>			



교직원 다모임 자기소개



멘티미터 활용 의견 수렴



교직원 다모임 외부 개방

### ③ 다 같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상정초등학교 교직원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던데 그 원동력이 뭘까요?”

우리 학교를 올해 방문한 외부의 인천 교육 가족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과 ‘같이’의 ‘가치’를 교직원 다모임을 통해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내년에는 교직원이 의논하여 ‘다모임 규정’을 만들고, ‘교육공동체 협의회’를 따뜻하고 유쾌하게 발전시키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올해처럼 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이 혼자 걷는 열 걸음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상정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

학교 내 학부모 참여 확대

행복배움터는 나눔과 협력으로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요

# 인천식암초등학교





## 행복배움터는 나눔과 협력으로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요

학교명	인천석암초등학교	작성자	교사 이상은
중점과제	미래형 학교혁신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	세부과제	학교 내 학부모 참여 확대
주제영역	학부모 자치 및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참여주체	학부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자치 활동의 시작</li> <li>• 학부모 교육참여 활동 운영</li> <li>•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운영 결과</li> </ul>		

### 1 학부모 자치, 시작은 여기서부터

#### ○ 학부모의 바람과 소망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가 올 수 없는 학교가 되었고, 공동체의 만남은 랜선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올해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모두가 바랬다. 특히 행복배움 7년차 학부모들의 바람은 더 큰 것이었다.

“선생님,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리워요. 예전에는 아침맞이도 하고, 아이들과 행사도 하며 석암초 일원으로서 소속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언제쯤 우리도 아이들을 함께 맞이할 수 있을까요?”

#### ○ 배움과 나눔이 있는 삶을 위한 교육

행복배움 교육은 학생의 삶과 맞닿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과 연계, 학부모 교육참여는 필수다. 석암초 학부모회는 학교참여 활성화의 기본이 되어 있는 곳이다. 2021. 12. 학부모교육참여 활성화 공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학부모회 활동은 학교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학부모 자치활동 지원으로 접근하였다. 학부모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치운영을 하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도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 학부모의 평생교육 강좌 개설부터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설한다.

- ✿ 학부모회 활동을 체계화하고 학부모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기부수업을 활성화하여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의식을 높인다.
- ✿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생동감 있는 교육 참여를 해본다.

## 2 수요자 중심 학부모 아카데미를 열다

2021 대토론과 협의회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 『공예교실』로 즐거운 학교 만들기

평생교육 개설 희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희망한 부서는 '비누공예, 향초공예' 였다. (주 1회씩, 총 5회 실시)

#### 학부모님의 후기

유\*\*\*: 수업도 재미있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배우고 싶어요.

손\*\*\*: 향이 너무 좋은 디퓨저랑 캔들을 만들 수 있어서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 너무 즐거운 공예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기회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엄마표 영어교실』 우리 아이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학부모가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영어교육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학부모회는『엄마표 영어교육』을 준비하였다.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총 5회에 걸쳐 '그림책 읽기를 통한 엄마표 영어교육' 강좌를 진행하였다.

#### 학부모님의 후기

나\*\*\*: 잘 모르는 영어 그림책 소개도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빨리 읽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김\*\*\*: 영어에 부담감 때문에 처음엔 망설였는데 수업을 듣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3 학부모 생태 환경동아리(1기)를 조직하여 운영하다

2022학년도 석암초는『미래역량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학부모와 협력하며 학생의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환경동아리를 조직하였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와 환경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임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학부모가 앞장서고, 지구생태시민으로서 석암초 학부모회가 학교-사회 연계의 협력적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 ○ 서구 하수처리시설 체험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환경 시설이 있는지 알아보는 와중에 첫 활동으로 서구 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 환경동아리 회장 공지

안녕하세요. 비온뒤 파란하늘 보이더니, 흐린 날씨네요~~  
다들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저번 투표결과에 따라 견학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가좌사업소 견학일시: 7월 7일 목요일 10시 30분  
학교에서 모여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모일 시간은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 쓰레기 매립지가 없다. 대안은?

특히 인천은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심각하다. 인천 시민으로서 환경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업사이클공예’가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동아리 회원들도 자원재순환의 관점에서 업사이클에 대해 공부하고, 교육기부 수업으로 연결해 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 ○ 얘들아~ 플라스틱 방앗간을 아니?



### 석암 학부모 환경동아리 「플라스틱 방앗간」 행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석암초 학부모 환경동아리입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서 열심히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등으로 우리가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는 만큼 지구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불편한 사실은 분리 배출된 쓰레기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더군다나 깨끗한 페트류 쓰레기를 수입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위기 석암초 학생 여러분 함께 해결해볼까요? 버려지는 페트병류를 모아서 자원재순환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보는거에요. 깨끗한 페트류만 모으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경도 살리고, 이벤트에 참여하여 선물도 받아보세요.

#### ——『플라스틱 방앗간』행사 참여 안내 ——

##### 1. 행사 내용

석암초 모두 함께 **똑소리나게! 아무지개! 페트병 모으기**

2. 행사 기간: 2022. 9. 21.(수) ~ 9. 23.(금) (3일) 08:00~09:00

##### 3. 참여 방법

- 집에서 일주일 동안 모으는 방법 참고하여 **유색 및 투명 페트병 모으기**
- 모은 페트병 3일간(9.21.(수)~9.23.(금)) 아침 등굣길에 구령대에 있는 자루에 넣기
- 환경을 위해 노력한 여러분 멋져요~ **기념품 받기**

**\*기념품은 1인당 1일 1회만 제공되며,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 모아진 페트류는 전문수거업체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혹은 석암초 학생을 위한 활동에 쓰여집니다.



페트병 수거하기

수거한 페트병 모으기

### ○ 환경수업 교육기부 활동으로 참여

환경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업사이클링의 생활을 실천해보고자 추천하였다.



커피박 점토 수업 준비

커피박 탈취제 만들기

## 4 석암 학부모 명예사서회 활동

### ○ 밖으로 나가는 도서관

**학부모님 소감** 학생들과 함께 교실 밖 세상에서 책읽기를 해보고 싶었다.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서든 독서가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유로운 독서활동으로 학생들의 호기심 자극할 수 있어서 좋았다.

### ○ 학부모 스토리텔링

**학부모님 소감** ‘책 읽어주는 어머니’ 스토리텔링 활동은 1, 2학년 학생들에게 책 읽어주고, 독서활동 후 체험활동으로 진행하였다. 가면만들기, 편지쓰기, 비누만들기, 컵쌓기, 초성게임, 속담맞추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책읽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고, 독후활동을 통한 학생들 창의력 증진까지 기대가 되었다. 우리들 스스로도 행복배움학교 공동체의 자존감과 만족도 모두 상승할 수 좋은 기회였다.

### ○ 22학년도 독서 축제를 열다(예정)

- 주제: 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 대상: 전교생을 대상으로
- 기간: 2022.11.08.~11.22.
- 방법: 부스 체험 형식으로 명예사서 활동의 마무리를 학생들과 함께 운영

부스	활동 내용	배치인원(총17명)	주의사항
한국관1	그림의 띡 ★1~2학년 - 튜김우동, 짜파게티 ★3~6학년 - 까르보 불닭, 짜파게티	3명	※교내 취식금지 하교 후 취식지도
한국관2	여럿이 다 함께 - 딱지 치기	2명	다함께 왕을 이겨라
케냐	전통 악세사리 - 구슬 팔찌 만들기	2명	개별 패키지 포장
영국	설록홈즈 따라하기 - 미로찾기 - 지우개 증정	2명	저, 중, 고 나눠서 준비
미국	내가 스파이더 맨 - 거미줄 만들기	2명	색종이, 가위
핀란드	산타클로스 체험하기 - 산타 복장으로 사진찍기	3명	핸드폰 지참
터키	풍선으로 열기구 만들기	3명	풍선, 샘플 사진

## 5 이웃과 나눔을 학생들과 실천해요

### 텃밭 수확하고 김장하기

2019년부터 매해 교과연계로 6학년들을 대상으로 김장체험을 함께 하고 있다. 석암초는 생태교육으로 3~6학년 학생들이 틈밭을 가꾸고, 가을이면 배추와 무를 수확한다. 김장의 유례부터 직접 담은 김치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여 나눔의 기쁨도 학생들과 함께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기에 매해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11월 15일 진행할 예정이다.

### Epilogue: 행복배움 석암초는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

일 년간 학부모와 함께 실시한 다양한 체험 활동은 석암 공동체의 삶으로 이어져 왔다. 학부모 스스로 방법을 찾고 시행착오도 겪으며 지나온 시간이었지만 내년에 더 좋은 교육활동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행복배움 석암초는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내감사 아이만이 아니라 석암의 학생들을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있기에 석암의 행복 교육은 쭉 이어질 것이다.

윤리적 생활공동체

행복을 더하는 용정 학교사랑 축제 만들기  
**인천용정초등학교**



## 행복을 더하는 용정 학교사랑 축제 만들기

학교명	인천용정초등학교	작성자	교사 이보경
중점과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세부과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주제영역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는 세대 공존 학교문화 조성		
참여주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li> <li>교육구성원으로서의 학교 사랑 실천하기</li> <li>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 기르기</li> </ul>		

### 1 여러분은 우리 학교를 사랑하시나요?

아이들이 있고, 교육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자라요.

우리 학교에는 배움의 설렘으로 반짝이는 학생들과 그 학생들을 가르치며 애쓰시는 선생님, 이외 안전한 학교를 위해 애쓰시는 학교 구성원들이 계십니다. 저마다 학교에 오는 이유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용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생활하고 있고, 누구보다 많이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용정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아마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 바탕을 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해야 한다면 결코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 소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금보다 소중한 가치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학교사랑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소통으로 변하기 바라며, 그리고 금보다 소중하고 빛나는 것들이 각자의 마음에 차오르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 캐릭터 만들기’, ‘학교사랑 사진 콘테스트’, ‘용정초 삼행시 짓기’, ‘학교사랑의 마음을 담은 리본 달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단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육공동체가 서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나아갈 때, 더 큰 결실을 맺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 2 행복을 더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 ○ 우리 학교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학교를 상장하는 것에는 학교명, 교목, 교화, 교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우리 학교를 상징하고 소개할 수 있는 캐릭터를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학교 캐릭터 만들기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용정 캐릭터 만들기’ 콘테스트를 안내하여 작품을 받았고, 신청 작품은 가정에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교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캐릭터 만들기 콘테스트에 총 10개의 우수작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작은 교육공동체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최우수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우수작은 본교의 공식 캐릭터로 만들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이름과 어울리는 멋진 캐릭터가 탄생하여 교육공동체의 많은 응원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용정 캐릭터 만들기 콘테스트 최우수작  
‘용정이’



‘용정이’ 소개 가정통신문

### ○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행복 더하기

학교 캐릭터 콘테스트 이외에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찍은 사진 콘테스트’, ‘용정초 삼행시 짓기’, ‘학교사랑의 마음을 담은 리본 달기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사랑의 마음을 담은 리본 달기 활동’은 개교기념일을 맞아 각 학급별로 리본끈을 활용하여 학교에게 편지를 쓴 후, 본교 후문 펜스에 직접 리본을 달면서 학교 사랑을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이 행사에는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념품으로 연필을 선물 받아 모두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후문이 학생들이 쓴 편지들로 알록달록 가득 차게 되어 등하굣길 풍경이 더욱 웃음이 넘치고 활기차게 되었습니다. ‘사진 콘테스트’와 ‘용정초 삼행시 짓기’ 역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각 우수작 10개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교육공동체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우수작이 선정되었고, 방송조회를 통해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행사 내내 본교 1층 정문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 등 학교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과 행복을 나누며 햇살만큼 밝은 행사 기간을 보냈습니다.



#용정초등학교 #행복한용정초  
#좋은학교 #모두가친한학교  
인천용정초등학교

학교사랑 사진 콘테스트  
최우수작



학교사랑축제  
우수작 감상



학교사랑 리본끈 달기 행사



학교사랑 포토존 체험

### 3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를 향하여

#### ○ 한 걸음 더, 우리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교의 축제나 행사는 담당교사 한 명이 모든 내용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축제나 행사는 교사와 학생 일부가 아닌 학교를 구성하는 교육공동체가 모두 함께 참여해야 그야말로 모두가 하나되는 행복한 행사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교사랑축제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각 학년별로 학교사랑축제 관련 교육과정 편성을 하였으면 학급별로 학교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행사에 대해 안내한 후 각 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라 아침 시간, 관련 교과 시간, 방과 후 등 시간을 활용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축제 기간 동안 학생들의 활발한 행사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콘테스트의 경우 모든 교육공동체가 투표에 참여하여 우수작을 선정하였으며 투표 결과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 4 학교사랑 축제가 지나가고…

#### ○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지난 2년간 우리 학교는 코로나19로 다소 경직된 학교생활 및 학급 중심의 교육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선생님, 친구들, 학교에 대해 생각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학교사랑축제를 통해서 우리 용정 교육공동체는 잠시나마 코로나19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 서로 활발히 소통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축제에 함께 참여하며 학교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었으며, 학생들 역시 우리 학교를 탐구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며 나아가 학교의 주체로서 민주적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학교 행사를 통해 우리 용정 교육공동체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만드는 학교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용정2022 - 116호】

소통·공감·내다른  
Happy 토정

2022 특별한 강회를 만나다!  
가족공감 역사·문화 캠프 안내

안녕하십니까?  
행성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보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에서는 「2022 특별한 강회를 만나다!」  
가족공감 역사문화 캠프, 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 사 명: 「2022 특별한 강회를 만나다!」 가족공감 역사문화 캠프

○ 참가대상: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교육 기관 가족

○ 참가인원: 각 기관별 6~10명, 각각 아동(1기족 4인 기준, 전자금은 모집)

○ 운영일자: 7월 01일(화), 02일(수), 03일(목), 07일(월), 08일(화), 09일(수), 10일(목)

○ 운영장소: 강회전시체험관, 연극장, 강회 회관식 마을

○ 주 비 용: 출동비, 계절비 및 투자금, 상여금, 기상조건에 따른 우비, 우산 등  
(온수는 제공함)

○ 참 가 비: 무료 (최소인원 1400 ~ 9. 2(화) 18:00  
\* 1기~4기 모두 휴 기간에 신청  
\* 19기에는 등록는 가능을 선택하여 1회로 신청 가능하며, 충복신청을 경우  
\* 휴 기간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①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https://www.iiec.go.kr>  
② (온수온) 학부모로그인 신청  
③ (제작경) 출전체험학습 2022 특별한 강회를 만나다! 가족공감 역사문화 캠프  
④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  
⑤ 신청서 작성(학년 및 연락 가능을把握자 휴대폰 번호 반드시 기재)  
⑥ (요청사항) 휴 기간에 참여가능 충인원을 반드시 기재

○ 신청방법: -선수온 접수(신청기간 외 접수금은 주관부처 거부)  
-신청 단원이 접수를 시 허가 및 거부될 수 있음

○ 결과발령: 2022. 9. 6(화)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알림

○ 결제안내: 결제 유형 제반사항은 안내문을 위한 네이버 BAND\* 가입 정보 문자 발송 예정  
\*네이버 BAND는 통한 프로그램 및 준비물, 체험 시기, 문의사항 등 안내

○ 문 의: ☎ 032)627-8891

2022. 8. 25.  
인천용정초등학교장



새로 바뀐 가정통신문 양식

함께 소통하는 모습이 익숙한 우리

## 5 마치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 학부모님께서는 행복배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만드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학교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시간들을 점차 가지면서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하나되는 마음으로 천천히 나아가야겠습니다. 작지만 가치 있는 실천들이 모이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나아간다면 행복한 용정초의 큰 숲이 만들어질 것이란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칩니다.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우리학교 색깔은 '초록초록, 초록색'

# 인천주원초등학교





## 우리학교 색깔은 ‘초록초록, 초록색’

학교명	인천주원초등학교	작성자	교사 최은정
중점과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세부과제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주제영역	학교와 마을 숲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생태환경교육		
참여주체	학생/ 마을활동가/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감으로 마을 숲과 친구되는 환경 감수성 교육</li> <li>• ‘에플(에너지, 플라스틱) 다이어트’ 기후환경 프로젝트</li> <li>• 작물을 키우는 보람과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학급 틀밭 가꾸기</li> </ul>		

### 1 주원초의 색깔찾기

#### ○ 행복배움학교를 시작하며

2022년은 주원초가 행복배움학교를 시작하는 첫해이다. 행복배움학교로 선정되어 그 시작을 준비하며 주원 교육공동체가 가장 고민한 것은 주원초의 색깔찾기이다. 주원초를 졸업하고 나서도 학생들의 추억과 성장으로 남는 배움, 주원초를 전출한 후에도 선생님들의 기억과 보람으로 남는 가르침, 주원초에 자녀를 보냈던 학부모님의 마음에도 잔잔하게 울릴 여운으로 남을 교육과정.

#### ○ 주원초의 색깔은 초록초록, ‘초록색’

새롭거나 낯선 것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것, 익숙한 것을 새롭게 해보기로 하였다.

‘초록초록 생태환경교육’이 그것이다. 그동안 학급이나 학년마다 또는 학교에서 함께 했지만 산발적이고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었다. 낙후된 원도심의 삭막한 골목길에 있는 주원초, 그렇지만 선물같이 학교 옆에 희망의 숲 공원이 있어서 마을연계 생태교육 장소로 그만이다. 더구나 여름방학부터 학교 숲 공사도 시작하여 내년에는 본격적인 학교 숲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배움학교의 첫발을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으로 시작하기로 하였다. 학년마다 주제와 영역을 정하여 해를 거듭하면서 보다 확장하고 더 깊이있게 할 수 있는 생태환경 감수성 교육과 환경문제 참여 교육이 우리 주원초의 초록초록 생태환경교육이다.

## 2 연와마을 희망의 숲에서 가꾸는 생태 감수성

### ○ 계절따라 달라지는 숲놀이

‘준서랑 저녁 먹고 희망의 숲에서 한 바퀴 도는데, 강아지풀로 하는 놀이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 어릴 때도 몰랐던 놀이였는데,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학교에서 배웠다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교 옆 희망의 숲에서 사계절 숲 놀이를 배운다. 생태교육기관의 숲 해설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계절마다 학년 수준에 맞춰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와 생태교육을 실시하였다.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식물부터 키 큰 나무까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곤충과 새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친구가 되었다. 떨어진 솔방울로 땅따먹기를 하고 개나리꽃 날리기 시합도 재미있다.

고학년은 마을 숲 생태환경 지도를 그리고 시화를 그린다. 학교 밖이 교실이 되고 마을은 학교가 되었고 학생들은 마을 숲에서 배운 것들을 차곡차곡 익히며 환경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다.



1학년 숲놀이  
작은 꽃 빙고



2학년 숲놀이  
지렁이 칭찬하기



3학년 숲놀이  
하늘 향해, 야호!



4학년 숲놀이  
찾았다! 곤충 알



5학년 숲놀이  
내 나무 이야기 소리



6학년 숲놀이  
가을 소리 낙엽 밟기

## 3 우리반 틀밭 수확으로 채우는 생태 소양

### ○ 작은 틀밭에서 키운 유기농 푸른 꿈

집에서는 한 번도 고추를 그냥 먹지 않았던 아이들도 함께 키운 고추를 아삭 씹어 본다.

학교 운동장 모퉁이에 학급마다 나무틀 한 개씩 학급 땅이 생겼다. 텃밭이 아니라 틀밭인 것이다. 이런 작은 땅에서 어떤 것이 자랄까 했었는데 아주 작은 씨앗과 모종을 심었더니, 어느새 방울토마토, 오이, 상추, 고추, 가지, 고구마, 당근, 배추, 무……. 학급 틀밭마다 저마다의 작물들이 쑥쑥 자랐다. 지역의 텃밭 교육 강사님을 모셔서 이론과 실제를 함께 배워나가며 작은 농부님들이 키운 유기농 채소는 연하고 싱싱했다.

학급마다 넘치는 작물은 서로 나눠 주기도 하고, 물김치를 만들고 상추쌈을 먹고 집에서 에어 프라이기를 가져와 고구마도 구워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이제 가을배추와 무가 다 자라나면 학급마다 김장 냄새가 향긋하겠지?



작고 좁은 고랑 속에  
씨앗이 쏘옥



틀밭 수확물로 물김치  
담그기



틀밭 첫 수확,  
고기 없이도 맛있는 상추쌈



김장을 준비하며  
가을무 가을배추 가꾸기

### 4 ‘에플(에너지, 플라스틱) 다이어트’ 기후환경 프로젝트로 키우는 환경 역량

#### ○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주제중심 프로젝트

주원초의 ‘초록초록 생태환경교육’의 핵심 활동은 학급의 주제중심 프로젝트 활동이다. 학급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 활동하지만 생태환경교육의 연계성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올해의 대주제는 ‘에플 다이어트’프로젝트이다. 대주제에 따라 학년별로 소주제를 정하고 마을과 연계한 주제중심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지역에 다양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을 찾아 학년 수준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지구의 달 4월은 중점적으로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전개하였다.

이제 우리 주원 학생들은 급식실을 가기 전 교실 LED 등과 TV를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본 사람이 끈다. 또 플라스틱 생수병을 가지고 오는 학생이 없다. 물병에 물을 담아 오는 선한 동참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남동구 재활용센터  
3학년 자원순환교육



인천시 자원순환교실  
4학년 자원순환특공대



인천환경연합  
5학년 에너지 마법학교



6학년  
택배상자로  
환경보호 현수막 만들기

### 5 2023년 주원의 학교 숲에서 만들어 갈 생태환경교육

지금 주원초는 학교숲 공사가 한창이다. 2023년 봄에는 학교 숲이 초록초록 새싹들이 돋아나고 나비와 새들이 날아올 것이다.

학교 숲을 만들기 위해 학생 디자인 TF팀이 꾸려져 1학기 내내 디자인 협의회를 거쳤고 최종 디자인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투표로 정해졌다. 모두가 시작부터 함께 한 사업이다.

주원초의 초록초록 생태환경교육이 아름드리 나무처럼 자라나서 학교 숲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생태놀이를 가르쳐주며 함께 노는 모습, 아이들이 작은 꽃과 곤충 하나도 소중히 사랑스럽게 가꾸고 지켜주는 모습, 마을 주민들이 학교 숲에서 쉼을 느끼고 추억을 만드는 그런 날을 기대한다.



학생 TF팀이 만든 학교 숲  
디자인



학교 숲 최종 보고회

문화예술 교육과정 활성화

학교 안과 학교 밖, 교육과 문화예술을 잇다!

# 인천창영초등학교





## 학교 안과 학교 밖, 교육과 문화예술을 잇다!

학교명	인천창영초등학교	작성자	교사 윤은주
중점과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세부과제	문화예술 교육과정 활성화
주제영역	즐거운 배움과 행복한 삶이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참여주체	학생 / 학부모 / 지역주민 / 마을활동가 / 지역유관기관 관계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운영</li> <li>•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운영</li> <li>•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운영</li> </ul>		

### 1 즐거운 배움이 있는 교육, 문화예술교육

#### ○ 배우는 기쁨, 행복한 삶

배우는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프랑스의 교육가, 폴 랑그랑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배움은 일생을 통해 계속 이루어진다. 일생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는 배움의 모습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기준해 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배우는 기쁨’을 아는 사람, ‘배우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 ○ 문화예술교육은 왜 필요한가?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의 하나인 ‘심미적 감성 역량’은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문화 및 예술을 향유하는 능력 즉 심미적 감성은 사회 속에서 양육 및 교육이라는 후천적 학습에 의해 형성 되어진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창의성과 감수성을 중심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나아가 창조성과 감수성에 협동성과 수용성 등 문화교육의 효과를 더하는 교육을 하는 것<sup>1</sup>으로 문화예술 향유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1 이정화. 문화예술과 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2014.

## ○ 문화예술교육, 창영 학교의 고민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도 2년이 훌쩍 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전에도 열악하기만 했던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더욱 급격히 위축시키는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진 구도심, 도시 재생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창영초등학교는 전교생 240여 명의 소규모 학교로 가정환경 및 교육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그래서 돌봄, 기초기본학습능력 향상 등 양육과 교육의 기본적 영역에서도 학교 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학부모의 경제적 여유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무관심 등의 이유로 대부분 학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학교의 고민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경비,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하여 즐기며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문화예술교육을 보조·지원할 수 있는 교육 경비를 최대한 끌어모으며, 다양한 공공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활용하는 등 교과과정 내외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전문 강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학교와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상호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지역유관기관과 함께 동행하며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모색과 변화를 실천하였다.

## 2 학교 안,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설계하다!

### ○ 문화예술 교육과정 영역과 교육과정 재구성

예술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교육청, 인천동구청, 학생교육문화회관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및 체험, 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창체 및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본교 교사와 전문 강사를 활용한 협력 수업을 통해 1인 1악기 동아리 수업을 운영하고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예술동아리를 자율적으로 개설하고 활동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감수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 1인 1악기 익히기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학년 교육과정 분석, 학생 발달정도, 학교 여건,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학년군별

단위로 1인 1악기를 선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1~2학년은 악기 입문기로 오카리나를, 3~4학년은 음악교과와 연계하고 다음 학년 악기 수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우쿨렐레를, 5~6학년은 기타를 지도하였다. 학년별 필수 연주곡을 단계별로 선정하고, 꿈오름무대와 문화예술주간 발표회(2022.11월 중 운영 예정)를 통하여 개별, 단체별 학습결과를 발표하는 프로젝트 학습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학급의 특성을 살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비말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도하고, 다양한 연주곡을 활용한 개별 연습-확인 형식으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 방과후 학생예술동아리 운영



1인 1악기 – 오카리나

1인 1악기 – 기타

방과후 예술동아리 – 바이올린

방과후 예술동아리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올린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수요일 방과후 시간을 지정하여 1회 2시간씩, 연간 총 40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동아리활동은 배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행사, 교육청 예술축제에 자발적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의욕 및 동기를 자극하고 성취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 ○ 전문예술강사 활용 수업(연극, 무용, 사진수업)

교육지원청의 예산 지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한 인적·물적자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영역의 교육과정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연 1개 영역씩 교과 교육과정 내 무용, 연극 등의 학교예술강사 활용수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학교 자체 채용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예술 기능 및 예술 감수성을 신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역	내용	운영 기간(대상)	협조	장소
연극수업(1)	2022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2022.3.10.~7.12.(1~6학년) 150시간 운영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	각 반 교실
연극수업(2)	2022 공모사업 혁신운영제 자율선택제 사업	2022.9.5.~11.30.(1,2,4,5,6학년) 56시간 운영	자체 채용	각 반 교실
무용수업	인천동구청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22.9.5.~11.18.(1~6학년) 70시간 운영	인천동구청	재능실
사진수업	금창동 도시재생 공모사업	2022.9.27.~9.30.(4~6학년) 16시간 운영	금창동 도시재생센터	교실 및 금창동 일원
마을그림수업	사라져가는 금창동 마을 풍경 그리기	2022.9.28.~9.30.(1~3학년) 6시간 운영	마을활동가	금창동 일원



### 3 학교 밖, 지역사회와 문화예술교육을 잇다!

#### ○ 문화공연, 공예체험, 문화체험, 실크인쇄체험, 놀이체험으로 어우러진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의 기반을 형성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 소양을 기르며, 지역사회를 포함한 교육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년 발달단계, 학생의 흥미, 교육과정 분석 등을 통해 학년별 필요한 영역을 선정하여 지원 기관과의 조정 협의 후 연간 일정 차시 이상을 마을 연계 프로젝트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역	내용	운영 기간(대상)	협조	장소
문화공연 체험	톡톡! 예술두드림 (클래스 공연)	2022.5.27.(1,2,4,6학년)	학생교육문화회관	강당
	찾아가는 문화공연 관람 (마술쇼 공연)	2022.6.15.(1,3,4학년)	인천동구청	강당
	상반기 학생공연관람 (비보이 공연 관람)	2022.4.26.(5,6학년)	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하반기 학생공연관람 (햄릿 공연 관람)	2022.9.21.(5학년)	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찾아오는 아침 등굣길 음악회 (국악 공연)	2022.10.5.(전교생)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강당, 학교숲
	남부! 예술로 스며들다 음악회 (클래스 공연)	2022.10.7.(전교생)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강당, 학교숲
공예체험	재능나눔 강좌 (슈링클스, 풍선아트, 토탈공예, 라탄공예, 케이팝, 펜글씨)	9/14, 11/1, 11/7, 11/10, 11/17, 11/24(전교생)	인천동구청	각 반 교실
문화체험	일본문화체험, 요리체험, 제과제빵체험	2022.7.12.(5학년) 2022.7.14.(6학년)	영화국제관광고	영화국제 관광고
	추석맞이 전통 인사 나누기, 송편나누기	2022.9.7.(희망학생 10명)	창영종합사회복지관	창영동 일원
실크인쇄체험	에코백, 조각보, 파우치 만들기 및 실크인쇄	2022.9.14.~11.2. (희망학생 30명)	(주) 쇠뿔	문화재관 마을교육실
놀이체험	교육지원단과 함께하는 놀이 한마당	2022.10.13.(전교생)	학부모봉사단	운동장 및 강당



상반기 학생공연관람  
(비보이 공연 관람)



재능나눔 강좌  
(슈링클스 마스코트 만들기)



추석맞이  
전통 인사 나누기



실크인쇄체험  
(페이퍼 리스 만들기)

### ○ 모두의 냉장고, 마을사랑 봉사단, 마을바우처, 동구랑으로 행복을 나누다

‘모두의 냉장고’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하는 누군가의 나눔으로 운영되는 공유 냉장고이다. 학교 텃밭, 마을 텃밭에서 함께 기르고 수확한 작물을 전교생과 함께 나누며 학생 스스로 ‘한 사람에 하나씩’이라는 사용 규칙도 만들어 내었다. 또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식재료들을 가져와 ‘모두의 냉장고’에 공유하고 기부하는 보람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마을사랑 봉사단’의 활동은 특별하다. 학교 인근의 창영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인분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모종도 심고 잡초도 뽑고 텃밭에 이름도 짓는다. 재배한 채소와 작물로 샌드위치도 만들어 나누고 고추장도 직접 담궜다. 또한 장애인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장애인식교육을 직접 체험하였다.

창영초 인근 배다리 책방 골목에는 옛 정취와 함께 소호 형태의 마을 체험 장소가 빼곡하다. 마을 연계 바우처 사업을 기획하여 전교생이 이곳 배다리 마을 골목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였다.

동구랑 활동은 인천동구청과 연계하여 동구청을 탐방하고 CCTV 관제센터, 동구랑 스틸랜드 등을 직접 찾아가 경험해보는 활동이다. 우리 마을 구석구석을 CCTV로 둘러 보고 동구청 이 곳 저 곳을 답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경험하고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모두의 냉장고



마을사랑 봉사단



동구랑 체험



마을 플리마켓 활동



## 4 교육과정 설계 시 고려 사항

문화예술교육과정 재구성 시 교과 분석, 학년별 발달단계,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의미한 활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나치게 행사성, 일회성, 나열성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학년별, 단계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가능한한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대한 운영 묘미를 살려 교육적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 5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이 가져온 변화

### ○ 더욱 단단해진 교육공동체

창영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생들의 다양하고 의미있는 교육활동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자긍심,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교육공동체로서 더욱 책무성과 결속력이 강화되었다.

### ○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진로탐색 및 진로의식 고취

여러 형태의 예술 활동을 통해 악기를 배우는 것만이 예술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영역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고조되었다. 또한 예술과 관련된 자신의 적성과 능력과 살펴보고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는 등 진로 의욕이 고취되었으며 자기표현역량, 협업역량, 창의인성역량 등이 신장되었다.

## 6 마치며

문화예술교육은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 투자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예술교육이 아닌 자연스럽고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통해 심미적 감성 역량이 신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치기보다는 학년별, 단계별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교육공동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 투자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정기 학생자치회의 운영

더 멀리, 더 높게 나는 학생자치

# 인천해서초등학교





## 더 멀리, 더 높게 나는 학생자치

학교명	인천해서초등학교	작성자	교사 김민지
중점과제	학생자치회 활동 활성화하기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 전교학생자치회의</li> <li>정기 학생자치회의 운영</li> </ul>
주제영역	학생자치		
참여주체	학생, 교직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스로 길을 만드는 리더들, “햇치부 학생자치위원회”</li> <li>우리가 주인이 되는 학교, “전교자치회의”</li> <li>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우는 학생들</li> </ul>		

### 1 더 나아가기 위한 변화

#### ○ 인천해서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의 변화

지난 2020년도 인천해서초등학교에서는 학생자치와 관련하여 변화를 시도했다.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모아 교내 전교임원과 학급임원을 선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전교임원과 학급임원을 의무적으로 선발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학교를 위해 봉사하고 싶지만 정해진 인원으로 인해 선발될 수 없는 경우, 임원으로서의 자질보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선발기준이 되는 경우, 학생자치회를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선발되는 경우 등 문제점은 다양했다.

선거를 없애고 학생자치회를 희망하는 학생들로 학생자치회를 꾸렸다. ‘학생자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교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학생, 학생들의 생각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싶은 학생, 자신의 끼와 재능을 표현하고 싶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더 행복한 해서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게 되었다.

## 2 학생의 삶으로 더 다가가는 학생자치회

### ○ 스스로 길을 만드는 리더들, “햇치부 학생자치위원회”

올해 4~6학년 중 학생자치위원을 희망한 학생은 40명이었다. 대부분은 작년에 학생자치위원을 해 본 학생들이었고 소수는 친구의 권유로 함께 왔거나 4학년이 되어 학생자치회가 궁금해서 온 학생들이었다. 2022년도 학생자치회를 출범하기 전, 작년 학생자치회 활동과 소감을 살펴보았다. “직접 행사를 운영해서 좋았다.”, “학교에 오면 심심한데 바쁘게 할 일이 있어 행복했다.”, “몇 학생만 고생하고 나머지는 방해해서 힘들었다.”, “회의가 너무 많아 올해는 하고 싶지 않다.” 작년 학생자치회의 좋았던 점은 유지하고, 아쉬웠던 점은 보완하기 위해 학기 초에 리더십 교육과 OT를 실시했다.

리더십 교육을 통해 리더란 어떤 역할인지, 우리가 기대하는 리더의 모습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OT에서는 자신의 성격과 특색을 살려 부서를 조직하고 부서별로 활동을 계획했다.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아이들은 자기 소개를 하며 낯선 공간과 낯선 이들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오기 시작했다.



학생자치회 첫 회의



각 부서별 첫 만남

공식적인 학생자치회 회의는 월 1회로 학생자치위원이 모여 각 부서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음 달 부서 행사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이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비공식적인 회의를 만들어 주 1회 이상 모이기 시작했다. 학생자치 담당 선생님이 행사의 취지와 목적은 말해주셨지만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일을 시켜줄 것을 기다리던 학생들은 점검하는 날이 다가오자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했다. 자주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며 자신이 학교에서 설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갔다. 누군가 만들어준 자리는 쉽고 편하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기 어렵다. 반면, 스스로 만든 자리는 좀 불편하더라도 값지다. 만드는 과정에서 배움이 있고, 만든 후에는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부서별 활동

## ○ 우리가 주인이 되는 학교, “전교자치회의”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스스로 고민하고 나아갈 길을 찾기 시작한 학생자치회는 학생자치회가 아닌 학생들도 주인의식을 갖도록 다양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총 4번의 전교자치회의를 통해 학교와 학생을 연결하고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의 고민과 의견이 반영되는 장을 만들었다.

제1차 전교자치회의에서는 ‘학생자치에 대해 배우고 학생자치회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치위원이 1~6학년 모든 학급에 흩어져 학생자치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안건함–에 대해 안내했다. 학생들은 교실놀이와 보물찾기(숨은 글자 찾기)를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학생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했다.



제1차 전교자치회의

제2차 전교자치회의에서는 ‘전교생을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운동장과 복도에 버려진 쓰레기들, 큰소리로 하는 욕설, 아슬아슬 위험하게 노는 모습 등이 불편해지려면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 된다. 나의 일 또는 내가 아끼는 이의 일이 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된다. 학생자치회는 1~6학년을 섞어 6명씩 한 팀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팀과 함께 여러 가지 미션을 해결하도록 부스 활동을 준비했다. ‘처음 만난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잘 활동할 수 있을까?’ 교사들이 올타리를 정해주고 자율권을 주자 학생자치회와 학생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잘 해냈다. 5~6학년 선배들은 동생들을 살피고 의견을 조정하는 팀장 역할을 수행하였고, 1~4학년 후배들은 선배를 따라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전교자치회의의 마지막 활동으로는 꿈과 끼를 펼치는 장기자랑을 했다. ‘와, 1학년이 저렇게 용기 있게 춤을 추는구나.’, ‘줄넘기를 넘는 것도 자신만의 장기가 될 수 있구나.’, ‘학교를 오가며 보던 저 선배가 마술을 할 수 있다니.’ 등 학교에서 오가며 봤던 타인과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한 관계로 재정비하는 시간이었다.



제2차 전교자치회의



제2차 전교자치회의

제3차 전교자치회의에서는 '전교생의 공통규칙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른과 아이 모두 더 개인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몸의 거리가 멀어지니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고,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덕목과 가치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며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과 규칙, 건강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과 타인을 대하는 법 등을 배우고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 교사들이 모여 교내에 시급한 문제와 의견을 나누고 전 학급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사와 학생들의 1·2·3순위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교사 의견	학생 의견
–안전 규칙: 복도, 주차장, 특별실, 엘리베이터	–안전 규칙: 복도, 엘리베이터, 공놀이
–전자기기 사용 규칙: 핸드폰, 노트북	–폭력 예방 규칙: 욕설, 심한 장난, 언어
–방과후 운동장 및 학교시설 개방시간	–공공예절

학생자치회는 이전의 전교자치회의와 같이 1~6학년을 섞어 6명씩 팀으로 만들고, 각 학급으로 흩어져 회의를 진행했다. 공통규칙의 필요성과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더 심층적으로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작년에 학생들이 냈던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체 놀이 활동을 하며 제3차 전교자치회의를 마무리했다. 회의를 마친 후, 학생자치회는 각 학급에서 있었던 의견을 수합하여 전교 공통규칙을 만들고 매달 1~2가지씩 학급에 안내·캠페인을 통해 실천을 독려하기로 했다. 제4회 전교자치회의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제3차 전교학생자치회의

### 3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우는 학생들

#### ○ 우리를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피크닉”

40명의 많은 학생자치위원에게 자율권과 주도권을 주며 묻어가는 학생 없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부서별 활동을 강화하였다. 그러다 보니, 각 부서 안에서는 화합이 잘 이루어졌지만 부서 간의 교류는 많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학생자치회 피크닉’을 정기적으로 갖다. 자치위원들은 장소 섭외부터 프로그램 준비, 진행까지 맡는 것에 부담보다는 즐거움으로 참여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행사가 아닌 우리끼리 즐기는 행사였기에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함께 격려하며 피크닉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교자치회의에서는 주로 5-6학년 자치위원이 진행을 맡았다면 피크닉에서는 4학년과 평소에 진행을 하지 않던 자치위원이 주요한 역할을 맡아 경험을 쌓는 무대가 되기도 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만들어준 놀이에 참여만 하던 학생들은 자신과 또래를 위해 놀이를 고민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함께 노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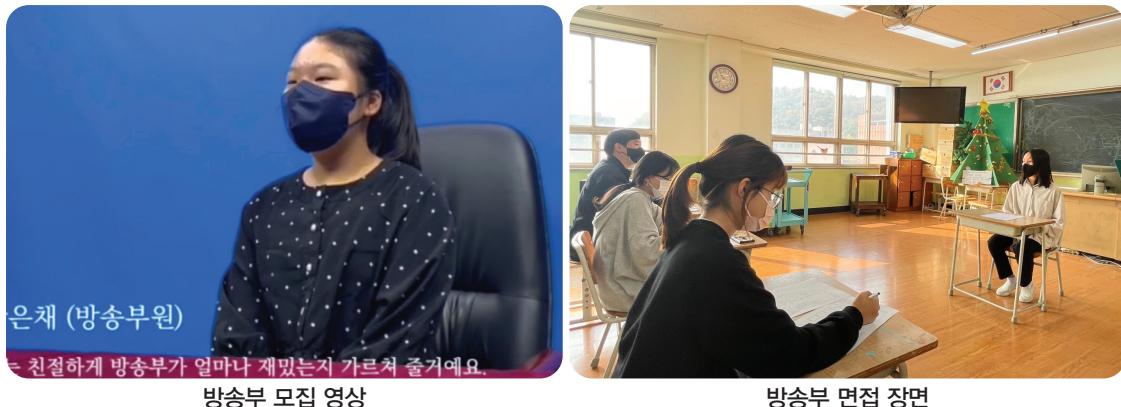
햇빛부 피크닉

#### ○ 전교자치회의를 기다리는 학생들

몇 차례의 전교자치회의를 하자 많은 학생이 자치위원과 담당 선생님을 알아보고 소통하기 시작했다. “다음 전교자치회의는 언제예요?”, “저도 장기자랑하고 싶어요. 2학기에도 장기자랑해요?”, “선배랑 노는 게 좋았어요. 또 하고 싶어요.”, “4학년이 되면 자치위원이 될 거예요.” 등 다음 전교자치회의를 기다리는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자신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하기도 하며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학생들이 생겼다.

#### ○ 다음 리더를 세우는 학생자치위원회

2학기가 되자 졸업을 앞둔 자치위원 몇 명이 ‘다음 리더를 세우는 것’을 고민하였다. 그리고 학생자치회를 체험해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제안을 했다. 담당 선생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이들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포스터로 체험부를 모집했다. 면접을 통해 다음 해에 자치위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철저함도 보여졌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자치위원들이 진심으로 학생자치회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자신들만 즐거움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치와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주려는 모습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그 즐거움을 나누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 4 더 멀리, 더 높게 날 수 있는 아이들

학생자치를 생각하면 어느 시인의 글이 생각난다. “날려 보내기 위해 새들을 키웁니다. (생략) 힘차게 나는 날개짓을 가르치고 세상을 올곧게 보는 눈을 갖게 하고 이윽고 그들이 하늘 너머 날아가고 난 뒤 오래도록 비어 있는 풍경을 바라보다 그 풍경을 지우고 다시 채우는 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학생자치는 학생들에게 힘차게 나는 법을 알려주는 일, 세상을 올곧게 보는 눈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닐까?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껏 날개짓을 할 장소와 기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수하여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돌보고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줄 어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너는 날 수 있다’는 믿음과 날개짓을 계속 이어갈 힘을 주는 격려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올해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더 멀리, 더 높게 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학생자치 활동도 학생들에게 날아갈 기회를 주고,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볼 수 있는 일이 되길 기대해본다.





마을교육

마을교육

# 인천별빛초등학교





## All About 영종도

학교명	인천별빛초등학교	작성자	교사 박세웅
중점과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세부과제	마을교육
주제영역	학생중심 마을연계교육과정운영		
참여주체	학생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연계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우리마을 영종도에 관한 자료 수집</li> <li>3학년 각 반(6개 학급)별로 영종도 내 현장체험학습지를 선택 및 탐방</li> <li>마을교육과정 및 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여 운영</li> </ul>		

### 1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만드는 현장체험학습

#### ○ 우리가 계획하여 함께 떠나는 영종도 현장체험학습

이제까지의 현장체험학습은 교사 중심으로 교육 활동 장소를 정해 운영하는 일방적인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프로그램 선정에 이르기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현장체험학습의 목적지로는 마을 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살고 있는 영종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한 뒤 사전에 심도 있는 자료 수집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체험 장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현장체험학습이 끝나고 사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 2 영종도를 알아보자

#### ○ 마을교육의 장, 영종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애과 삶을 마을 안에서 연결 짓고 일치시키고자 학생 중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의미 있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한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영종도는 도농복합 지역, 항구, 공항, 관광지 등 매우 우수한 지역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직접 계획하고 실제로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한 뒤 사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장소 감각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3 학생중심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 ○ 학생중심 현장체험학습 운영 교육과정 개발

학생 중심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주제	차시	활동 내용
영종도를 둘러봐요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할 내용 알아보기</li> <li>▶ 우리 동네 영종도 둘러보기</li> <li>▶ 토의토론을 통해 체험학습 장소와 영종도 소개자료 만들기 방법 선택하기</li> </ul>
영종도의 모습을 알아봐요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종도 여러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기</li> <li>▶ 내가 생각하는 영종도 그리기</li> <li>▶ 내가 그린 영종도의 모습과 실제 모습 비교하기</li> <li>▶ 영종도에 대한 생각과 느낌 나누기</li> <li>▶ 내가 생각하는 영종도 그리기</li> <li>▶ 영종도를 자랑하는 글쓰기</li> </ul>
영종도 속으로 들어가요	2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종도의 다양한 모습 살펴보기</li> <li>▶ 디지털 영상지도를 이용해 영종도 살펴보기</li> <li>▶ 영종도의 지명 알아보기</li> <li>▶ 영종도의 옛이야기 중요성을 알아보기</li> <li>▶ 영종도의 지명이나 옛이야기 만들기</li> <li>▶ 영종도의 문화유산 조사하기</li> <li>▶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현장체험학습 참여하기</li> <li>▶ 마을 티셔츠 만들어 현장체험학습 참여하기</li> <li>▶ 소개자료를 만들기 위한 자료 모으며 현장체험학습 참여하기</li> </ul>
영종도 소개해요	4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맞춤형 영종도 마을 및 문화유산 소개자료 만들기</li> <li>▶ 영종도하면 떠오르는 음악 생각하기</li> <li>▶ 영종도에 대해 공부한 내용 전시, 발표, 나눔활동하기</li> </ul>
성찰하기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마무리하기</li> <li>▶ 성찰하기</li> </ul>

#### ○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급별로 현장체험학습 장소에 대해 토의한 결과, 학생들이 이미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경험, 자발적인 의견 등을 자유롭게 모아 세계 평화의 숲, 마시안 갯벌, 백운산 및 용궁사, 영종진공원 및 영종역사관, 인천학생과학관으로 체험을 가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교사들은 체험학습 협력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학생 이동경로, 체험활동 시설 안전 점검 및 안전 지도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 4 학생중심 현장체험학습 실천 결과

### ○ 조금만 노력하면

학생 중심 마을 탐방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마을 교육을 활용한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마을을 주제로 자료를 수집하고 장소를 선정하는 토의하는 등의 사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학생 중심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생 및 교사는 마을을 긍정적인 장소로 인식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교육 자원임을 확신하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마을은 지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방법,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 실천의 장임을 깨달았다.



3학년 1반 - 세계평화의 숲



2반 - 마시안 갯벌



3학년 3반 - 백운산 및 용궁사



3학년 4반 - 영종역사관



3학년 5반 - 영종진공원



6반 - 인천학생과학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학생자치 활동

더 멀리, 더 높게 나는 학생자치  
**연성중학교**





## 더 멀리, 더 높게 나는 학생자치

학교명	연성중학교	작성자	교사 양채간
중점과제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세부과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학생자치 활동
주제영역	학생자치 / 전문적학습 공동체		
참여주체	교직원 / 학생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년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한 함께하는 배움</li> <li>교육공동체 문화 형성</li> <li>학년별 다양한 특색있는 자치활동</li> </ul>		

### 1 함께하는 배움 – 전문적 학습 공동체

2022년 시작과 함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학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부지런히 준비해나갔다. 3월 신학기 시작 전, 2월에 전입 예정의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행복 배움 학교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연수를 진행해 나갔다.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의 교육 비전과 학년별 교육철학 및 구체적 운영 방향을 학년과 교과를 반영하여 선생님들이 그룹 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정했다. 집합 연수를 활용하며 진행한 연수 활동에 있어, 모든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족스러운 교육 계획을 짠 상태에서 신학기를 맞이했다. 2월부터 구성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총 12회의 수업 공개를 위해, 수업 연구에 집중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다. 수업을 준비해나가는 과정과 하나의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함께 준비한 수업의 진행 과정을 살피고, 그 속에서 각자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배우기 위해 애쓰는 그 모든 과정, 과정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 번의 수업을 위해 수업디자인이 1, 2차에 의해 2주간 진행되었다. 학년, 교과, 학생별 특징을 모두 고려하며 선생님들의 활발한 수업 계획이 이루어졌다. 몇 년 동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수업디자인과 공개가 이어지다 보니 본인이 수업한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각기 다른 교과의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냈다. 교과가 달라, 지도안이 생경한 느낌이거나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선생님들이 스스럼없이 질문하셨고, 다양한 활동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기坦없이 의견을 내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며 유의미한 학습공동체 활동을 한다는 보람을 많이 느꼈다. 협의회 때에만 수업을 준비하기보다는, 학년 실에서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1차와 2차 협의회 사이에 수시로 지도안을 수정하며 수업을 준비해나갔다. 이 과정을 거치며 공개수업을 할 즈음에는, 어떤 교과의 누구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학습공동체가 함께 꾸려 내어놓는 수업이란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 공개수업을 진행할 때는, 해당 학습공동체뿐 아니라 학교 전체의 대부분 선생님이 오늘은 어떤 새로운 점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하며 수업에 참석했다. 다른 과목의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 공개와 디자인을 통해 익숙한 내용을 본인이 직접 수업을 듣고 배우는 활동인 듯한 느낌으로 수업 공개에 참여한다. 수업 후의 협의회에서는 계획대로 된 활동에 대해서는 함께 기뻐하고, 예상치 못 했던 학생들의 반응에 서로웃기도 하며, 의도한대로 진행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다. 모두가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경험하고, 각자의 수업에 적용시킬 부분을 찾는 기쁨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2월 행복배움학교 연수



2월 수업디자인 연수

1학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총 15회 실시)1학년 수업 공개  
(총 5회 실시)2학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총 12회 실시)2학년 수업 공개  
(총 4회 실시)3학년 전문적 학습 공동체  
(총 9회 실시)3학년 수업 공개  
(총 3회 실시)

## 2 학년별 자체활동

학교와 친해지는 학교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학년별 자체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 ○ 1학년 자체활동

1학년은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주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기도 했지만, 실수하거나 미숙한 부분에서도 스스로 배워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학생들을 믿고 지켜보기로 했다. 1학년은 특히 매월 자체 행사를 준비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했다. 학생들이 연말 행사까지 쑥쑥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2학기에는 많은 행사를 능숙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과 많은 선생님이 참여할만한 활동을 계획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지구의 날’ 행사에는, 학교가 아닌 저녁 시간에 집에서 참여하는 활동인데도, 모두가 시간을 맞추어 참여하는 점이 감명 깊었다. 1학년 자체 행사 중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이 뜨거웠던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구의 날’, 로즈레이 행사도 있었지만, 특히 ‘연성다방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반응은 특히 뜨거웠다. 이벤트 형식이 강한 행사로, 보살 분장을 한 학생들이 학생과 선생님이 뽑은 문구를 보고, 덕담과 상품을 나누는 행사였다. 북적북적한 분위기와 보살 역할을 한 학생들의 순발력으로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학교에 대한 느낌이 좀 더 긍정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듯했다. 학생들이 행사를 계획하고, 문구를 하나하나 적어가며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가며 행사 자체를 즐기고 책임감을 배워갔다.

## ○ 2학년 자치활동

2학년의 자치 행사 중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도도한 나’(도전과제 도전하여 한걸음 더 성장한 나 만들기) 행사이다. 2학기 시작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장기적으로 지켜나갈 목표를 개인적으로 정하고, 한 학기 동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장기 프로젝트였다. 소소한 것부터 큰 목표까지 본인이 중학교 2학년에 꼭 이루고자 하는 바를 밝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학기 동안 노력했다. 달성 정도를 표시하고,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이 세운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체험학습과 연계하여 가을 우정사진전도 학생회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아이들과 중학교와서 처음으로 함께하는 체험학습에서 사진도 찍고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활동이 되었다.

## ○ 3학년 자치활동

3학년의 학년 프로젝트는 ‘학년 텃밭’이었다. 반별로 희망자 신청을 받고, 학년 텃밭을 꾸릴 학생단을 꾸몄다. 도시 아이들이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아이들은 폭발적인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방학 때에도 물을 주기 위해 수시로 학교에 들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했다. 텃밭을 가꾸는 선생님과 학생뿐 아니라, 급식실 가는 길에 있는 학년 텃밭의 성장을 전교생과 전교직원이 지켜봤다. 작은 열매가 처음 열렸을 때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기뻐할 정도였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본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보며 학교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학교와의 마음의 거리 또한 좁혔다고 생각한다. 서투르고,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선생님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창의력과 실천력을 보여주는 학생들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학교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1학년 지구의 날



1학년 미션수행하기



2학년 도도한 나 행사



2학년 가을 우정 사진전



3학년 밴드데이



3학년 행복텃밭

민주적 학교 공동체

22 관교여자중학교 '함께행복배움의 날' 운영 사례

# 관교여자중학교





## 22 관교여자중학교 '함께행복배움의 날' 운영 사례

학 교 명	관교여자중학교	작 성 자	교사 송지현
중점과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세부과제	민주적 학교 공동체
주제영역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행복배움학교 성과 공유 및 성장방안 대토론회		
참여주체	교직원, 학생, 학부모, 전출교사, 졸업생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하는 행복배움학교 성과 공유</li> <li>행복배움학교 성장 방안 마련</li> <li>주제별 토론회를 통한 자율적 성찰 및 학교 개방</li> </ul>		

### 1 4년 차 행복배움학교로서의 발걸음

#### ○ 종합평가를 위해 한 걸음씩 내딛다.

관교여자중학교는 2019년에 행복배움학교로 지정되어 4년 차가 되었다. 학년 초부터 종합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지만, 교육청의 공문안내와 워크숍을 통해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3월 행복배움학교 종합평가교 업무담당자 사전협의회 및 '함께행복배움의 날'운영 길잡이 연수 참여, 4~5월 행복배움학교 성찰 및 보고서 제출, 6월 '함께행복배움의 날'운영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9월 현장평가단의 종합평가 결과 및 활용이다. 정해진 운영의 형식과 주제가 주어진 것이 아닌 각 학교의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방식을 고려해야 하므로 담당 부서로서 고민은 매우 컸지만, 학교 교육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에 힘입어 한 걸음씩 종합평가를 준비했다.

### 2 학교 교육구성원이 '함께 준비하는 함께행복배움의 날'

#### ○ '함께 행복배움의 날'TF팀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다.

길라잡이 연수에 함께 참석했던 교감 선생님을 중심으로 각 담당부장이 TF팀구성하고 함께행복배움의 날 준비 및 진행 과정에 대해 다수의 기획 회의 및 담당부서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교직원 3명, 학부모 2명, 학생

1명을 포함한 6명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년간의 행복배움학교 운영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공기처럼 머릿속에 떠다니던 4년간의 행복배움학교로서의 활동들이 가시화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의 강점과 발전 과제를 정리하였다.

### ○ 행복배움학교 운영 성과 공유 및 성찰의 시간을 갖다.

4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시간을 통해 4년간의 행복배움학교의 운영 성과에 관한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기존 교사들과 신규·전입 교사들이 함께 공유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는 행복배움학교 교직원으로 생활하면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 “우리 학교 교육과정만의 강점과 보완해야 할 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과 업무경감, 혁신 철학 등의 다양한 의견”이 주제였다. 협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 중에 지금 반영할 수 있는 것과 논의를 통해 추후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분류, 정리하였다.

## 3 D-‘함께행복배움의 날’

### ○ 교육공동체 모두가‘함께’준비하는 D-‘함께행복배움의 날’

성찰협의회 등을 통해 정리된 성찰보고서를 6월에 제출한 후 ‘함께행복배움의 날’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다. 바쁜 학사 일정 속에서 새로운 날을 정할 수 없었으므로 전문적학습공동체 날을 활용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운영형식은 1부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함으로써 4년간의 운영 성과 공유하고, 2부는 학교 교육공동체별 모둠별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행복배움학교로서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먼저 본교에서 행복배움학교로서의 지난 4년간을 함께 해주신 분들과 자리를 함께하기 위해 전출 교사,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초대하였으며 일정상 함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 자치 동아리 학생들과 학부모 자치 동아리 어머님들, 그리고 모든 교직원이 주체별로 각각 운영 성과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고 제작해주셨다. 이로써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행복배움학교로서 경험한 사례와 변화의 과정을 준비해 주셔서 담당자로서 가졌던 부담감은 기우에 불과했으며 담당 부서는 모둠별 좌석 배치와 같은 기본 운영의 틀만 준비하였다.



학부모님들이 제작한 학부모 자치 동아리 영상  
(책수다, 세요각시)



학생자치동아리 학생들이 스스로 4년간의 운영 성과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발표함

### ○ 6월 15일, D-‘함께행복배움의 날’

졸업생과 전출 교사 5명의 영상을 시작으로 1부는 학생회와 학급자치활동, 학부모 동아리, 학생자율동아리,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한 영상과 발표를 통해 토크 콘서트로 진행되었으며 2부는 5개의 토론 주제를 좀 더 세분화하여 13개의 소주제로 나누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모둠 정원을 7~8명으로 구성, 13개의 모둠을 만들었다.

13개 모둠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 1모둠 ~ 3모둠 : 전문적학습공동체 관련
  - 각종 연수, 공동수업디자인, 교수학습 방법 연구 및 학생정보공유
- ▶ 4모둠 ~ 6모둠 : 창의적교육과정 관련
  - 기후생태교육/ 생태텃밭, 마을연계교육/동아시아시민교육, 진로교육/디지털교육
- ▶ 7모둠 ~ 10모둠 : 의견수렴 및 상호존중문화 관련
  - 교직원/교직원, 교사/학부모, 교사/학생, 회의문화
- ▶ 11모둠 ~ 13모둠 : 학생 및 학부모 자치 관련

각 교육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모둠의 구성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하나의 모둠에 섞어서 조직하였다. 또한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운영 계획 및 토론 주제, 그리고 학교 방문 교사 등의 신청을 미리 해줬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방문해 주신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도 소통하고 싶어 하는 희망 주제별 모둠에 함께 참여하였다. 좌석 배치는 탁구대를 세워서 모둠별 주제에 관한 종이 게시판을 부착, 사용하고 탁구대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앉아서 타 모둠과 분리, 좀 더 집중되고 아늑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포스트잇에 작성하고 모둠종이에 게시, 이야기를 나누며 합의를 이루어 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모둠별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다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둠별 주제 토론 모습



탁구대 모듈게시판에 의견 작성, 공유

모듈별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공유

토론을 이끄는 이끔이와 발표자는 미리 선정하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별과 하트 무늬 종이를 의자 뒤에 부착해 두어 부착 의자에 앉은 참여자들에게 무작위로 이끔이와 발표자 역할을 부탁드렸으며 뽑기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에 재미와 집중도를 높였다.

## 4 ‘함께행복배움의 날’를 마친다.

### ○ 함께 열어갈 행복배움학교을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모일 수 없었던 만큼 이번 ‘함께행복배움의 날’은 행사의 취지에 부합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큰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행사 후 TF팀과 담당 부서의 평가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행사의 경험과 기회를 시작으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이 함께 협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특히 전문적학습 공동체 활동시 교직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제나 방법을 협의, 계획하고자 한다. ‘함께행복배움의 날’에 참여한 각 교육주체별 평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들이 수용자가 아닌 교육의 주체임을 느꼈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었다.
- 학부모님들은 본교 입학시 행복배움학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학업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행복배움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자녀가 본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이 생겼으며, 더불어 행복배움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언해주셨다.
- 교직원들도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4년 동안의 흩어져있던 활동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학교의 강점이 무엇인지 인식하였으며 이런 강점을 더욱 짜임새 있고 심화된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앞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남아있는 행복배움학교 1기로서의 2학기를 더욱 내실 있게 실천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2022 세계시민 성장 프로젝트

# 신흥여자중학교





## 2022 세계시민 성장 프로젝트

학교명	신흥여자중학교	작성자	교사 이윤희
중점과제	빛깔 있는 학교교육과정	세부과제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주제영역	교육과정 자율성 제고로 지속가능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참여주체	학생, 교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한 '세계시민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함.</li> <li>'지속가능한 지구, 아름다운 평화, 세계시민 그림책, 따뜻한 나눔'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일년에 걸친 프로젝트로 운영함.</li> </ul>		

### 1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학교

#### ○ 글로벌 마인드 형성의 중요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를 위한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현장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들에 대한 노력이 빨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물론 정보화 교육과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 의식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더 넓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2022 세계시민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해보았습니다.

### 2 2022 세계시민 성장 프로젝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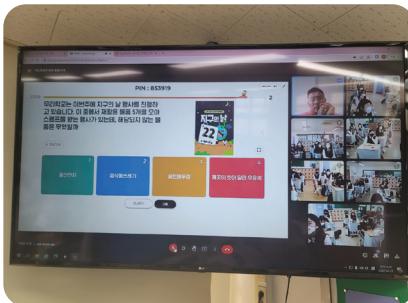
#### ○ 1부. 지속가능한 지구 이야기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교내에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구의 날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 방법 등을 홍보물로 만들고 전시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구의 날에는 전시된 홍보물에서 퀴즈 문제가 출제된다고 안내했더니 정말 작은 내용까지

빠트리지 않고 꼼꼼히 읽는 우리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구의 날’, 오늘은 하루종일 “지구‘를 생각하는 특별한 날로 정했습니다. 1교시에는 ’지구의 날‘ 영상을 시청하고, 퀴즈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반대항 ‘퀴즈로 알아보는 지구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내용들을 퀴즈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순위가 확인되면서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아졌고, ‘학급 간식을 잡아라!’ 미션과 함께 진행되어 50등 안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올라온 1학년 5반이 학급 간식을 받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퀴즈로 알아보는 지구



나의 다짐 쓰기

2교시에는 마을에 쌓여가는 비닐 봉지를 주워 가방으로 만들어 업사이클링을 실천한 실제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림책 <비닐 봉지 하나가>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버려지는 물건을 모아 사용가능한 물품으로 변신하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원순환교육을 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짐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3교시에는 실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로 버려지던 수많은 양말목들이 다양한 작품으로 재탄생되는 내용을 알려주는 영상을 감상하고, 직접 양말목으로 티매트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안내 영상을 보며 ‘양말목 티매트’라는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하나를 성공했습니다.

4교시에는 순록이 먹는 이끼로 불리는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하여 ‘교실 숲’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공기정화, 소음감소, 천연가습 및 제습 등 다양한 스칸디아모스의 효능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스칸디아모스를 예쁘게 붙여 완성한 나무 액자를 모아 멋지게 교실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담아 완성된 도안을 프린트하여 머그컵에 붙이고 프레스기로 전사하여 ‘나만의 머그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이컵, 플라스틱컵 대신 이 머그컵을 사용하기로 약속했지요.



교실 숲 만들기



아름다운 나의 지구 그리기



나의 다짐 쓰기

5교시에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두 번째로 버려지는 커피 가루를 활용하여 커피 연필을 만들었습니다. 커피 가루가 지점토처럼 되어 다양한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다며, 선생님의 안내 영상을 따라 예쁘게 연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6교시에는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나의 지구 그리기’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그림처럼 우리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아름답게 우리의 지구를 지켜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지속가능한 지구 이야기’ 활동을 마친 소감문을 작성하여 패들렛에 올렸습니다. 지구의 날을 처음 알았다는 학생들부터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이제부터 정말 작은 것부터 노력해야겠다는 학생들의 다짐까지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우리 신흥여중 학생들이 먼저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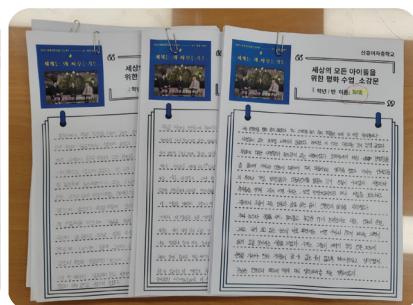
### ○ 2부. 아름다운 평화 이야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해지면서 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5월이 되면 5·18 민주화운동, 6월이면 6·25 전쟁을 떠올리게 되어 학생들과 ‘평화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 선생님께서 TVN <유 키즈 온 더 블록> 분쟁지역 다큐멘터리 PD편을 시청하시고, 어렵게 분쟁지역 전문가 김영미 PD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TVN <유 키즈 온 더 블록> 분쟁지역 다큐멘터리 PD편을 함께 감상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영미 PD님이 쓰신 도서 <세계는 왜 싸우는가?>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분쟁지역 전문가 김영미 PD의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전교생이 강당에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영상을 시청하고 책도 읽으면서 많은 배경지식을 쌓은 우리 학생들은 김영미 PD의 강연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열심히 강연을 들었습니다. 세계는 왜 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 분쟁지역의 참담하고 비극적인 모습과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평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PD님의 책에 사인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학생들에게 사인을 해주시고 함께 사진도 찍어 주셔서 더욱 학생들에게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영미 PD 초청 강연회



다큐멘터리 PD편 감상문



김영미 PD 사인회

그리고, ‘교실로 찾아가는 평화그림책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서로 돋고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중일 세 나라의 작가들이 함께 만든 평화 그림책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남겨 했던 동아시아 나라들의 전쟁을 소재로 하여 그림과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림책 중간에 학생들의 소감을 포스트잇을 붙이게 해서 친구들의 생각까지 함께 읽으며 더욱 깊이 있게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 3부. 세계시민 그림책 이야기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17개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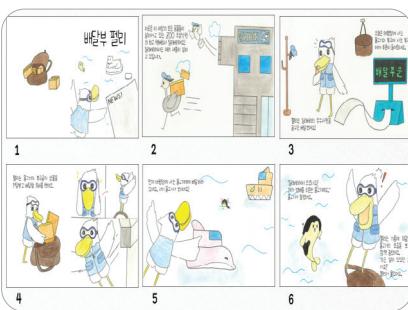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1단계 활동은 지속가능발전포털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양질의 교육, 성평등, 건강하고 안전한 물, 친환경적 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해양·육상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의하였습니다. 2단계 활동은 각 목표와 관련된 그림책을 3개권씩 주고 그림책을 소개하는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3단계 활동은 1~2단계의 활동을 모아 17개의 ‘카드 뉴스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총 6면으로 이루어진 카드 뉴스를 출력해서 커다란 정육면체에 붙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전시물’을 완성하였습니다. 4단계 활동은 17개의 목표를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어 ‘세계시민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각 단계의 모든 결과물을 모아 12월에는 세계시민 그림책 전시회 및 학생 저자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마을주민들도 초대하여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들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카드 뉴스 만들기



세계시민 그림책 만들기

## ○ 4부. 따뜻한 나눔 이야기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하면서 즐거운 학생참여형 수업을 통해 행복한 배움이 많이 일어났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간직한 행복한 배움을 우리 마을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마을에 나눠야한다는 생각에 학생들과 ‘행복나눔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친환경적인 우리 마을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일상 속 녹색바람 환경자원순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기본 상식과 투명 폐트병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을 배워 실천하였습니다. 투명 폐트병을 분리하고 플라스틱 뚜껑을 모아 중구자원봉사센터에 보내고 개인 SNS에 활동 내용을 올리며 환경보호캠페인을 실시했어요. 또한 사업 폐기물로 버려지는 양말목으로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티코스터를 매달 4개씩 만들어 나눔활동을 했습니다. 재활용과 리사이클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친환경적인 우리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친구들에게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했습니다. 5월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 천연비누+머그컵+양말목 티코스터’ 3종 선물 세트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중구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혼자 외롭고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청소와 안마 봉사를 하고, 떡공방의 전문강사님에게 배운 실력으로 직접 ‘망개떡’을 만들어 예쁘게 포장해서 어르신들에게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 마을에 함께 살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해외 아동들을 위해 ‘사랑의 핫픽스 에코백, 면 생리대’를 만들어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마을이 우리를 통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을 나누기 위해 마을로 향합니다.



김영미 PD 초청 강연회



사랑의 떡 만들기



사랑의 핫픽스 에코백 만들기

### 3 공동체의 작은 변화

#### ○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학생들

코로나19를 겪고 나서부터 더욱 개인주의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시민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던 우리 학생들이 틀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누구보다 진지하게 지구의 내일을 걱정하고,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학생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 교과수업&학급특색활동으로 세계시민교육 운영

선생님들을 위해 작년에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의 저자 공윤희 작가님을 모시고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미리 여름방학 선물도 책을 나눠드리고 연수를 진행하였더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책을 다 읽어오셔서 더욱 의미있는 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내 선생님들과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전체 프로젝트 말고도 각 교과수업, 학급특색활동과 세계시민교육을 연계하여 알차게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 4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의 희망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금 학교와 교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가득한 시점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좋은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학교와 수업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바탕에는 먼저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시켜 주는 세계시민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 줄 우리의 희망이 학생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 학교운영

학생 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

# 인천상정중학교





## 학생 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

학교명	인천상정중학교	작성자	교사 정정진
중점과제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세부과제	민주적 학교운영
주제영역	학생 자치 학급 자치의 활성화		
참여주체	학생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급 중심의 특색활동</li> <li>학생회 중심의 다양한 자치활동</li> </ul>		

### 1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 ○ 학생 자치의 목적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구, 선생님들과의 관계 맺기를 배우는 장소이고 사회로 진출하기 전 여러 가지 규범들을 배우고 익히는 장소이다. 이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 행사들이 학생 개개인 및 학교 전체의 민주적인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학급 자치 운영의 팁

학교 조직의 가장 작은 기능적 단위는 학급이다. 학급에서의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학급 주도의 민주적인 활동이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 향상이나 즐거운 학교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큰 역할이 있다고 하겠다. 행복배움학교 운영을 시작하며 교사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학급 자치 예산을 배부하였으며 담임 재량에 의하여 학생과 함께 하는 모든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다.

#### ○ 자치 운영의 팁

담임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돋고자 학급 자치 물품의 구입은 행정 실무사님의 도움을 받고 있어 담임 선생님들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또한 사례 제출을 위한 사진 촬영 및 학급 자치 내용을 정리하여 연말에 제출 하시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고민하며 내년에는 생략하면 어떨까 고민해 본다.

## 2 학급 중심의 자치 활성화

### ○ 파티 형태의 학급 자치 활동 우수사례

1학년 1반, 1학년 4반, 3학년 2반

- ♠ 1학년 1반 활동 : 우리가 왜 1반인가, 오목왕을 찾아서!
- ♠ 활동 내용 : 학급 체육대회 및 온라인 게임 활동을 통해 우리가 왜 1반인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급 협동과 배려, 소통을 통해 증명하는 시간을 가짐.
- ♠ 좋은 점 및 아쉬운 점 :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대회에 참가하여 좋았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미있게 토너먼트를 진행하여 좋았습니다. 토너먼트로 진행되기에 어쩔 수 없이 등수가 정해져 순위에 들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 ♠ 1학년 4반 활동 : 이달의 생일 축하 파티

- ♠ 활동 내용 : 한 달에 한번 생일파티를 차려서 서로 축하해주고 축하받는 시간을 가짐. 파티 주간을 지정하여 카드 도안을 직접 컬러링하고 꾸며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짐.
- ♠ 좋은 점 및 아쉬운 점 : 생일 축하를 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축하하는 아이들에게도 맛있는 간식(샌드위치, 마카롱, 아이스크림 등)을 함께 나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었음. 직접 컬러링하고 메시지 카드를 쓰면서 평소 고마움을 느낀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함께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풍성한 마음도 함께 느끼게 됨.



- ♠ 3학년 2반 활동 : 깜쳐보자~ 스포츠데이!!!
- ♠ 목적 : 학교 행사로 진행되는 스포츠데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사전 준비를 통한 급우들의 친밀감 고취
- ♠ 내용 : 스포츠데이 종목 연습하기, 응원도구 제작하기, 선물 나누기 등
- ♠ 방법 : 체육 및 스포츠 시간을 통해 경쟁 종목 연습하기(단체줄넘기, 8자 줄넘기 등) 반 티셔츠 착용 및 응원도구 제작하기, 스포츠데이 입장 결과에 따른 차등 선물 공약
- ♠ 시상 : 스포츠데이 종합 성적 2위 달성, 당일 준우승 선물과 함께 축하와 격려
- ♠ 좋은 점 : 학교 행사에 대한 학급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취감을 고취시켰으며, 친밀감과 자신감이 증대되어 학급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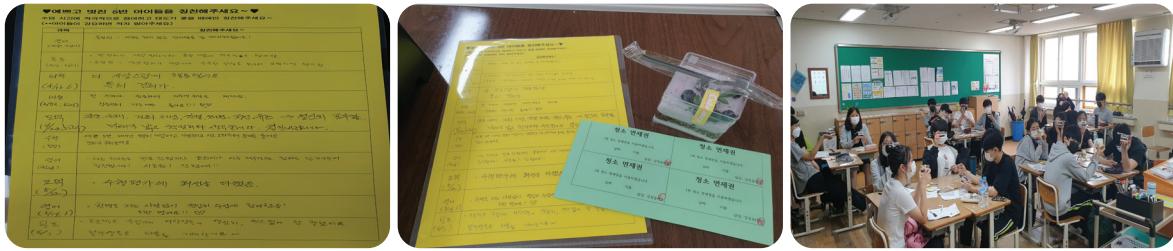


### ○ 학습 독려 형태의 학급 자치 활동 우수사례

#### 1학년 3반, 3학년 5반, 3학년 2반

- ♠ 1학년 3반 활동 : 이달의 노트필기 왕
- ♠ 활동 내용 : 각 과목 부장을 중심으로 서로의 학습노트를 공유하여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잘된 노트필기를 학급 학생의 투표로 선정함.
- ♠ 좋은 점 및 개선 점 : 다양한 노트필기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스스로 노트필기하는 법을 알게 됨. 아쉬운 점은 노트 필기 참여 학생의 필기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점차 개선되었음.

- ♠ 3학년 5반 활동 : 적극적인 수업 참여 칭찬 릴레이
- ♠ 활동 내용 : 각 교과 수업 시간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즐거운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과별로 칭찬 릴레이를 받는 활동을 함.
- ♠ 좋은 점 : 모범이 되는 학생은 칭찬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반 전체가 칭찬 릴레이를 받기 위해 모두가 열심히 수업에 임할 수 있어서 좋았음.



♣ 3학년 2반 활동 : 얘들아~ 할 수 있어!!!

♣ 목적

- 1) 3학년 마지막 정기고사를 앞두고 담임교사나 학부모의 응원 메시지 전달을 통해 감동 주기
- 2) 학생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확인
- 3) 시험에 대한 안정과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는 시간 마련

♣ 내용 : 담임교사 및 학부모의 응원 메시지 작성, 간단한 선물 제공

♣ 방법

- 1) 응원 메시지 부탁을 위한 학부모 문자 전송
- 2) 학부모 문자 메시지 정리 및 미도착 학부모 재독려
- 3) 담임교사 및 학부모 메시지 카드 작성, 선물 준비
- 4) 메시지를 담은 선물 전달
- 5) 시험 종료 후 학급시간 통해 부모님께 답글 작성 실시(이후 학부모 발송)

♣ 좋은 점 및 아쉬운 점 : 어느덧 훌쩍 커버린 자녀들에게 자주 건네지 못했던 학부모의 속마음을 전달함으로써 학부모와 자녀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이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자신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긍정적 에너지 발산의 시간이 됨.



## 3 학생회 중심의 자치 활성화

### ○ 학생 자치 구현을 위한 환경조성

2022년 전면 등교가 진행되어 그동안 단절되었던 학생 자치 사업의 활성화 환경이 조성 되었으며 역량 있는 대의원들이 선출되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 갈 수 있었다. 또한 학생 차치 업무를 맡고 있는 학생자치부장의 혼신도 자치 활동 활성화에 큰 뜻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 ○ 학생회 주도의 학교 문화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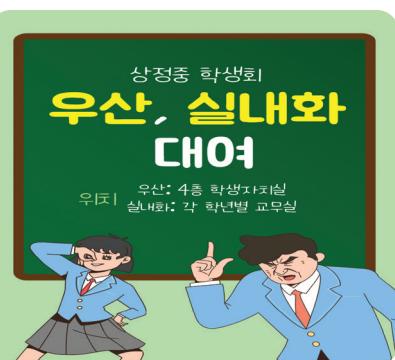
♠ 온 마음으로 응원해

- ♣ 내용: 친구들의 학교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등하굣길을 함.



♠ DJ와 함께하는 아침

- ♣ 내용: 학생, 교사의 사연을 받아 신청곡과 함께 방송하고 참가자 및 우수 사연자에게 상품을 시상함.



♠ 양심우산 실내화 대여사업

- ♣ 내용: 양심우산과 실내화를 비치한 후 필요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함.



♠ 골든벨 퀴즈 대회

- ♣ 내용: 학생회 주최로 실시한 교내 제1회 골든벨 퀴즈 대회로 역사, 문화, 학교 운영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제시하고 맞추는 시간을 가짐.



♠ 학생 중심 샘소슬제

- ♣ 내용: 학생 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중심 대면 공연을 마련하였다. 특별공연, 학생공연, 축하 영상 상영, 행운권 추첨 등 행복한 시간을 함께 나눔.

### 4 마치며

자치 활동을 통해 학급 자치를 이끄는 학급회장, 학생 자치를 이끄는 임원들 모두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학급과 학생 개인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며, 학생의 변화가 학교 전체의 긍정적인 발전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자치 활동을 통하여 상대방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통합해 가는 민주주의 활동을 보고 배운 학생들이 장차 훌륭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리라고 믿는다.

## 배움중심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주제통합수업 수업나누기

# 학습공동체로 함께 여는 행복교육

# 부평동중학교





## 학습공동체로 함께 여는 행복교육

학 교 명	부평동중학교	작 성 자	교사 이로사
중점과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세부과제	배움중심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주제통합수업 수업나누기
주제영역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여주체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기타 등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 혁신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li> <li>일상에서 교사-교사 간 존중 문화 실천</li> <li>교사와 학생 간 존중과 존경의 문화 만들기</li> </ul>		

### 1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 공동 연구 및 실천을 통한 교육공동체 상호 성장

2022학년도는 교과 융합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매주 수요일을 전체교사 연구회,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사 성장의 날로 지정하여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문화조성과 원활한 소통,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전문성과 상호협력을 통한 성장 및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꾀하였다.

#### ○ 학년별 교육과정 구성과 일년 계획 세우기

담임교사, 교과교사, 사서교사, 특수교사, 상담사 등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의 질 개선, 교육공동체 다방면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목표 의식으로 운영 목적을 다지고 이를 위해 교사들이 함께 수업공동디자인, 학년별 주제통합 제안수업, 수업 나눔 협의회를 거치며 교육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였다. 또한 학년 단결 프로그램 구안, 전학공별 연수, 함께 나누는 독서 모임 등 자율성을 바탕으로 2월 중에 미리 교육과정 공동 연구 및 실천 문화의 확산을 계획하였다.

	1학년 (일사천리)	2학년 (사이다)	3학년 (그린티처스클럽)	행정실무팀 (동빛)
중점 목표	일학년을 사랑하는 천사의 마음으로 함께하리	사랑으로 이끌고 다같이 함께 하는 2학년	Green은 신뢰와 자신감의 색상으로 너그러움을 의미하며,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 학생의 행복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3학년!	부평동중을 빛내기 위해 도움을 주는 실무팀

## 2 전문성이 살아 있는 학년별 주제통합 제안수업

### ○ 제안수업 설계 및 디자인

전문학습공동체 계획에 따른 공동수업디자인 작성, 제안수업 및 수업나눔을 실시하였다. 각 학년별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다양한 수업방법 및 실천사례를 함께 공유하며 상호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주제	각 나라의 다양한 의·식·주 문화와 스포츠 문화 이해	존중, 배려, 나눔으로 물드는 융합 수업	Goodbye Stress~!!
운영절차	공동 수업디자인 ⇒ 수업관찰 ⇒ 수업나눔 및 평가		
시기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진행	학년 제안수업자	학년 제안수업자	학년부장
참가	전문학습공동체 회원	전문학습공동체 회원	전문학습공동체 회원
준비	수업계획서	수업관찰지	수업관찰지

### ○ 제안수업 참여 및 평가 나눔회

제안 수업을 관찰한 후 학생들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경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모여 제안수업을 보고 느꼈던 점, 배울 수 있었던 점, 아쉬웠던 점 등을 함께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학생들의 교과마다 다른 수업 태도를 보며 학생들의 특성과 강점들도 새롭게 파악할 수 있었다.



공동 수업디자인



수업 나눔 및 평가

### 3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 ○ 나도 수업전문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15:00~)은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날’로 정례화하여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의 재능기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자신의 교과와 관련하여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로 구성하여 타교과에 대한 이해 및 활동으로 집단전문성 신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 학년별 모임에서는 ‘좋은 수업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묻고 학생과 교사가 상호 노력하는 교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활동 주제	담당자
다양한 프로그램	통합 학생 이해 및 교우 관계 어려운 학생 생활지도	특수교사
	학생 성장과 배움을 위한 다양한 수업 방안	수학교사
	교사와 학생지도를 위한 학교 안 미술치료활동	미술교사
	책 읽고 관련 주제 나누기	사서교사
	학생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모둠 활동	국어교사
	예술 활동을 통한 마음 챙김 활동	음악교사
	등교수업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온라인 학습툴 익히기	과학교사
	공감과 소통을 위한 독서활동	국어교사
	쉼이 있는 행복 놀이 수업	영어교사
	관심 학생의 이해와 치유를 위한 이야기 나누기	체육교사
		보건교사
		상담사

### ○ 독서모임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교과 연계로

인강 만들기, 도예 체험,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교사가 먼저 경험해보고, 자신의 교과시간 뿐만 아니라 학년별 특색사업이나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한 배움을 위한 값진 시간을 경험하였다.



재능 기부 및 독서 모임



다양한 체험활동

## 4 학교문화, 공동체 및 교실의 변화

### ○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바탕으로 교실의 변화를…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은 나 혼자가 아닌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했다. 이는 제안수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다양한 의견과 제안 사항을 함께 나눔으로써 '나와 너를 넘어 함께 가는 교육공동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께 노력하였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모두가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의 행복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

## 5 제언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는 말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다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공감대 형성과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수업에 대한 고민과 열정, 공동연구 및 실천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들을 마주하며 우리 모두는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

함께 만드는 학교 교육과정  
**동암중학교**





## 함께 만드는 학교 교육과정

학 교 명	동암중학교	작 성 자	교사 장서정
중점과제	미래형 학교혁신	세부과제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
주제영역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참여주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마을활동가,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등 동암마을교육공동체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주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li> <li>• 지역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li> <li>• 행복한 학교, 행복한 배움을 위하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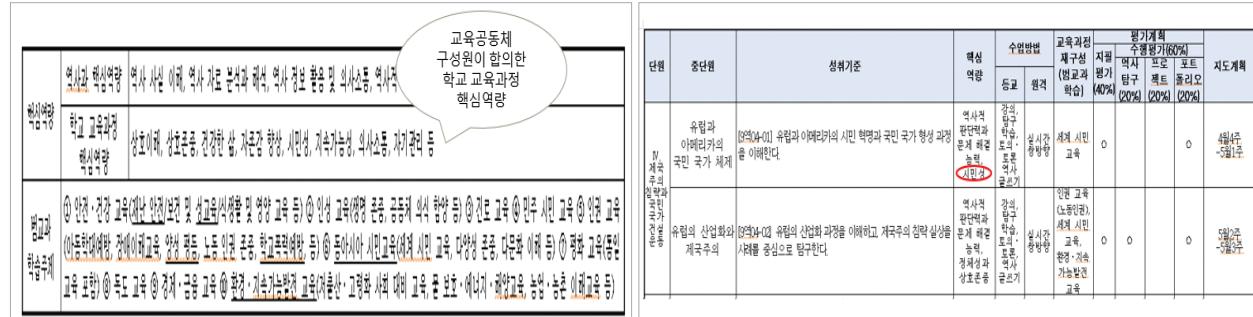
### ① 교육 주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의 삶과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만들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리 학교는 2021.3.1.자로 미래형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되었다. 그로 인해 교육 주체가 함께 만들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노력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 노력과 성취 등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 학교는 함께 만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 ○ 새학기 맞이 워크숍 – 함께 교육과정을 세우다

우리 학교는 작년에 ‘교육과정 상상하기’라는 이름의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전환 시민교육 강화”를 학교 교육목표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2월 새학기 맞이 워크숍에서 학교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학년 교육과정을 세우기 위해 각 학년 선생님의 열띤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1학년은 지구를 지키는 동암 용사(용기있는 사람), 2학년은 함께 느끼고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자(따뜻한 공감), 3학년은 기후변화

속 세계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실천)이라는 학년 교육목표가 세워졌고, 이에 따른 교과 간 융합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 교육과정을 만들고 보니 자연스럽게 1학년은 인식, 2학년은 이해, 3학년은 실천이라는 위계가 만들어져 각 학년 교육과정이 학습자 발달 단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학교 교육과정 교육목표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상호이해, 상호존중, 건강한 삶, 자존감 향상, 시민성, 지속가능성, 의사소통, 자기관리로 합의하고, 이를 연간 교과운영계획에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모든 교과의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합의한 학교 교육과정 핵심역량 교과운영계획에 학교 교육과정 핵심역량 반영

## ○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듣다

학기 초에 세운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3주체 협의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학교 평가 및 수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에는 학부모, 마을 활동가, 지역사회 기관 담당자, 인근 초등학교 교사 등 지역사회 인사를 초청하였다. 그 자리에서 지역 연계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 결과를 패들렛을 통해 공유하여 논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3주체 협의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 함께행복배움의 날



[2022 특별기획] 동암중학교 졸업생에게 듣는다

동종영광교 출생 여러분은 영광하세요! 92년전에 동종영광학교에서 연례집니다. 언어나 여러분들이 삶을 마주할 때 자신의 가치와 힘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동종영광학교는 2015년부로 교육부에서 정부교과서로 지정되어 교육과정을 통제하는 기관이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다른 교육 형태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고민해 실증분석하고 있으나요. 실증분석은 동종영광학교의 교육으로 교육과정이 실제로 어떤 혐오성을 가지고 있는지 성찰하고, 앞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바람은 저를 바라서 예상에 설득합니다.



### 3주체 협의회

### ○ 교육과정을 기록하다 – 아카이브 작업(백서 편찬)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 그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앞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데 선생님들이 뜻을 모았다. 이에 백서 편찬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2015년부터 8년간 운영되어온 행복배움학교 교육과정을 기록하였다. 책으로 출판되어 나올 예정인 백서에는 우리 학교의 교육철학, 그리고 그동안 우리 학교를 거쳐갔던, 또는 현재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감 및 성찰과 앞으로 우리 학교와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담겨 있다. 이러한 작업은 이후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고, 혁신교육에 대한 역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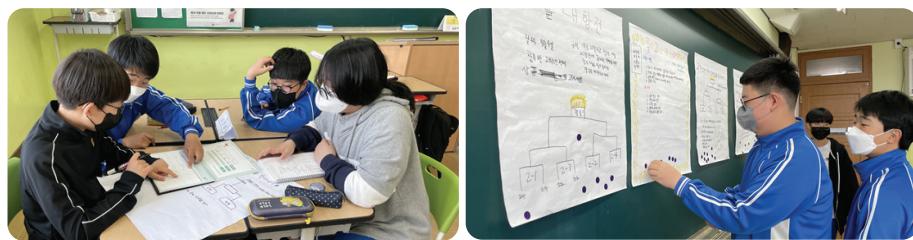
백서 편찬을 위해 연구하는 선생님들

전문가 초청 글쓰기 연수

## 2 지역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 ○ 마을 활동가와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다

우리 학교는 2022학년도 1학기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정 교과인 「시민과 사회 참여」를 선택 교과로 가르치게 되었다. 그 중 '마을과 사회 참여' 단원을 마을 활동가(동암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동고동락)와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였다. 기존에 우리 학교와 마을 활동가분들이 협력하여 개발했던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을 담당 교사와 협의하여 학생 수준과 수업목표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해보기로 하였다.



「시민과 사회 참여」 교과 수업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은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여 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마을 기관을 탐방하는 수업이다. 기관 탐방 시 기관 관계자를 섭외하여 마을의 실태 및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니 마을에 대해 더욱 이해가 잘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도교사에게도 마을을 이해하는데 좋은 경험이 되었다.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 진행 후 마을 활동가와 교육과정 평가회를 실시해 이를 확대, 심화한 '마을을 바꾸는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동네 한바퀴' 수업을 통해 마을을 탐방하며 마을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모둠원과 함께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토론한 후 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민 자치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탐구하며 삶과 연계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마을 활동가와 함께하는 '동네 한바퀴'



마을의 개선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학생들

### ○ 대학과 협력하다 – 서울대학교 미래교육센터

2021.3.1.자 미래형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한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학교로서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미래형혁신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뜻을 함께한 선생님들과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 학교의 교육목표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전환 시민교육 강화'를 이룰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차례의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쳤다.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미래형혁신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우리 학교는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17차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적용을 앞두고 있다. 개발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미래교육센터 유성상 교수팀에 자문을 구하고 마을 활동가를 참여시키며 지역사회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지역사회 기관인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교사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류의 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 교육과정의 객관성, 전문성을 높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지역 연계 교육과정의 공유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미래교육센터와 협업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팀

### ○ 초등학교와 협력하다 – 인천동암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학교급이 달라짐에 따라 생기는 급격한 환경 변화로 학습자가 느끼는 불안이 있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초등학교(인천동암초등학교)와 교육과정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 인천동암초등학교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여러 차례의 협의 결과 인천동암초등학교 진로의 날에 우리 학교가 참여하여 체험부스 운영, 학생자치회 및 동아리 연합 활동 진행,

인천동암초등학교 예비중학생의 날에 동암중학교 학교생활 안내 진행, 생활지도 관련 연수를 함께 듣고 협력 방안 논의 등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급이 달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지역사회 교육기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었다. 함께 소통하며 서로가 얻은 결론은 ‘진작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고, 함께하니 참 좋다’라는 것이다. 학교급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동질감과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서로에게 생기게 되었다. 지역사회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습자의 상급학교 진학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좋은 경험이었다.



인천동암초-동암중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방안 논의

### ○ 지역의 기관과 협력하다 – 쓰레기 무단투기 반대 캠페인

작년에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학교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관련 업무를 맡은 기관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클린 데스크’라는 캠페인 활동을 지역사회 기관, 지역사회 주민, 학교가 함께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이 실제로 눈에 띄게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였고, 지역사회 기관, 주민, 학교가 연대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물고 서로가 소통과 협력의 대상이고 공동체의 일원임을,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임을 알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올해도 십정2동주민자치회, 십정2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쓰레기 무단투기 반대

## 3 행복한 학교, 행복한 배움을 위하여

우리 학교는 2015년부터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해왔다. 올해로 8년차이고, 얼마전 2023.3.1.자 행복배움학교 공모 선정되어 이제 12년, 인천혁신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제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배움의 공간을 교실과 학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로 확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으로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여 학생을 기르는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학부모, 지역사회 기관 전문가와 협력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대한 논의 및 의사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학교가 지역의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행복한 학교, 행복한 배움을 위하여 교육 주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지역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관심과 공유, 확산이 필요하다.



민주적 학교공동체

씨실 날실로 공동체의 미래 엮어 가기

# 작전여자고등학교





## 씨실 날실로 공동체의 미래 엮어 가기

학 교 명	작전여자고등학교	작 성 자	교사 조윤아
중점과제	교육공동체 문화조성	세부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제영역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참여주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배움학교 4년 차,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li> <li>• 진정한 소통을 위한 준비 단계</li> <li>• 단계적으로 소통의 범위 키워가기</li> <li>• 모두 한자리에 모여</li> <li>• 하나 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그것이 행복배움학교의 가장 큰 힘</li> </ul>		

### 1 행복배움학교 4년차,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

#### ○ 지금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2019년부터 4년간 지속되어 온 작전여자고등학교의 행복배움학교 운영은 현장 평가단으로부터 ‘예전과 달리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바뀐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우리학교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고 확신한다. 그렇기에 함께행복배움의 날 진행은 그 변화의 과정을 함께 만들어온 우리 모두가 잠시 숨을 고르며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힘든 만큼 보람찬 꼭 필요한 자리였다. 과연 우리 교육공동체는 오늘의 우리를,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 ○ 소통, 쉬운 듯 어려운 그 두 글자

그렇게 가감 없이 받아본 작전여고 공동체의 의견 중 다수를 차지하던 것은 전체 소통을 위한 학교 차원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미 부서별, 교과별, 그리고 심지어 관리자-교직원, 학생-교사, 학부모-교사 등 다양한 소단위 소통은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소단위 소통의 결과물이 한자리에서 논의되고 합의점을 찾는 체계적인 절차가 부족했음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니즈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동체는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차근차근 소통을 위한 단계를 밟아 왔다는 반증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때마침 2023학년도 행복배움학교 재지정에 도전하며 교육공동체 협의회를 준비해야 했기에 이를 기회로 삼아 제대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 2 진정한 소통을 위한 준비 단계

### ○ 소통에 대한 관리자의 의지

민주적 학교공동체 조성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리자의 소통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이다. 평소 학생회 임원들과 상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학부모 참여 행사가 있을 경우 짧은 시간이라도 따로 확보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직원 모두가 주저 없이 언제든 크고 작은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관리자를 두었다는 것이 우리학교가 민주적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특히 교장실에 가변형 테이블을 새로이 배치, 기획위원회 및 각종 회의를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있게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 것 또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 ○ 때로는 학교를 벗어나 보기

바쁜 학사일정 속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행복배움학교로서 모두가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은 마련해야 한다는 업무 담당자의 막연한 책임감과 행복배움학교의 비전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관리자의 강한 의지, 그리고 부장단을 중심으로 한 TF팀의 적극 협조에 힘입어 우리는 잠시 바쁜 일상을 멈추고 파주 출판단지로 워크숍을 떠났다. 새로운 환경이 주는 힘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맛있는 음식과 멋진 문화체험, 그리고 행복배움학교 예산을 사용한 전 교직원을 위한 깜짝 도서 선물까지, 굳이 애써 오늘 워크샵의 취지를 역설하지 않아도 어느새 즐거운 마음으로 다들 평소 하지 못했던 학교생활에 대한 깊은 고민 들을 나누며 친목을 다지고 있었다.

## 3 단계적으로 소통의 범위 키워가기

### ○ 1차: TF팀의 토론 주제 선정 → 분과별 토론

민주적 소통을 위한 준비 단계는 이미 거쳤으니 본격적 소통의 장을 마련만 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는 주제 선정이 매우 중요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부장단을 중심으로 한 TF팀이 구성되었고, 사전협의를 거쳐 6가지 큰 논의 주제 및 담당 패널들을 정하고 TF팀이 각 분과의 분과장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하였다.

	분과별 지정 주제	담당 부서
1	교직원 협의 문화 조성 및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통한 교원업무경감	3학년/ 수석교사, 교무, 연구, 교육과정
2	학교자치	학생자치회 활성화
3		학부모자치 활성화
4		전문적학습공동체 내실화

5	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행복배움 과제 만들기	2학년 / 3학년
6	학급 간, 학년 간, 학교 간, 학교-마을 간 등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 방안 마련	2학년 / 생활안전부, 예능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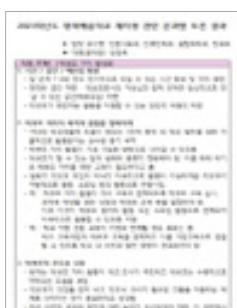
토론을 마친 후 각 분과별로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전 교직원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여 대토론회에서 논의하기로 기약하였다.



전 교직원 협의 주제를 정하기 위한 사전  
TF팀 논의



1차 분과별 토론에 집중하는 본교 교직원들



분과별로 나온 다양한 의견들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분과별 수렴된  
의견들을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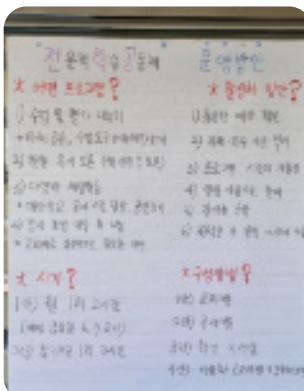
현장평가를 겸한 대토론회를 준비하며 참여 주체를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 TF팀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을 때 공통적으로 대두된 의견은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학생과 학부모 또한 학교의 중심을 이루는 두 개의 큰 축이기에 이들의 의견이 배제된다면 진정한 소통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 패널과 평소 학교 일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 또한 토론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토론의 규모와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조율이 있었고, 참여 주체의 관심사와 학교의 우선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자치 및 학부모자치 그리고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두 가지 주제를 8~10인 정도로 구성된 4개의 조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처럼 TF팀을 적극 활용한 업무 추진 또한 우리학교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브레인 라이팅을 초반에 실시하였고, 이젤패드와 전지를 활용하여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전체와 의견 공유의 자료로 삼았다. 또한 해당 자료는 모두가 볼 수 있게 회의실 밖 창문에 게시되어있었고 후에 교장실 벽면으로 옮겨져 기획회의 시간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캠프에서도 대토론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확장 시켜 추가 자체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우리의 소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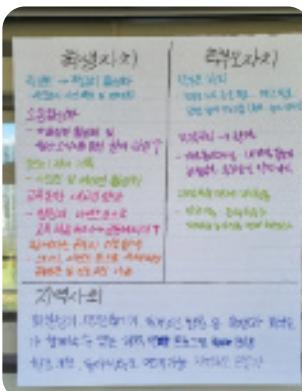
토론회를 준비하며 혹여 교사와 한 공간에 있어 위축되지나 않을까 우려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너무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 대표의 모습을 보며 모두가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모두가 주인인 학교, 이는 곧 행복배움학교의 궁극적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모여 학교의 현안을 논하는 대토론회 현장



대토론회를 통해 나온 우리의 의견들



대토론회 협의 내용을 확장한 학생회의 후속 논의



## 5 하나 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그것이 행복배움학교의 가장 큰 힘

행복배움학교 4년차로서 그간 우리 학교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4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발전해왔는지, 특히 교육공동체가 얼마나 행복배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4년의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학생자치, 학생중심수업이 살아 숨 쉬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 많은 변화를 이룩하였지만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든든한 기둥이 없었다면 모두 불가능했을 일들이었다.

혹여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다. ‘지금 구성원이 좋아서 그렇지, 구성원이 바뀌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야?’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미 우리에게는 행복배움학교로 만들어진 작전여고만의 행복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문화라고 불러도 좋을 그 분위기는 어떤 사람이 새롭게 들어오더라도 그들을 동화시키고 함께 이끌어 갈 힘을 지니고 있다. ‘변화는 많지만 변함은 없었다’라는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앞으로 생겨날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우리 작전여자고등학교는 변함없이 교육공동체의 행복을 찾기 위해 소통하고 나아갈 것이다.



민주적 학교 공동체

함께 행복배움의 날 운영

# 인천세원고등학교





## 함께 행복배움의 날 운영

학교명	인천세원고등학교	작성자	교사 이미현
중점과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세부과제	민주적 학교 공동체
주제영역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주체	교직원 / 학생 / 학부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배움학교 4년의 성찰</li> <li>•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세원 교육과정</li> <li>• 행복배움 성찰의 날과 함께행복배움의 날 운영을 통하여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배움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나누고, 즐기는 기회를 가짐</li> </ul>		

### 1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행복배움학교

#### 함께 행복배움 생각하기

2019년에 시작한 행복배움학교 4년차 종합평가인 함께행복배움의 날을 준비하며,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본교의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배움학교가 무엇인지 알고 느끼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행복배움학교가 하나의 사업이 아닌 인천세원고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는 것임을 알고 그 기조에 따라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게하는 과정이 필수일 것이다. 본교는 2019학년도에 행복배움학교, 세계시민교육 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과교실제 운영교로 지정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고, 사업이 많은 만큼 대부분의 교사들이 많은 행사와 사업에 밀려 기본개념을 알지 못하고 모든 사업들이 진행된 느낌이 많았다. 이에 4년차라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을 행복배움을 알아가는 해로 설정하고 4년의 세원고 행복배움을 성찰하는 원년으로 기획하였다. 우선 담당자로써 행복배움학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고 인천형 혁신학교로서의 역할을 교육 구성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세원고의 행복배움에 관하여 돌아보기를 시작하였다.

구분	일시	내용	비고
자료수집	3월	연차별 활동 자료 및 내용 수집	
운영성찰	4월 29일(금)	행복배움학교 돌아보기 (전문적 학습공동체활동)	

성찰 협의 및 평가항목 구성	5월 2일(월)	평가단 협의회	
평가단 평가회	5월 4일(수)	정량평가 지표 확인 및 평가	
함께행복배움의 날 계획 및 준비	5월 ~ 7월	배움나눔 학술제 준비 및 운영성찰	인문사회부 협력
함께행복배움의 날 운영	7월 14일(목)	배움나눔 학술제	
함께행복배움의 날 운영 결과 협의회 및 결과보고	7월 18일(월) ~ 19일(화)	결과보고서 제출	

### ○ 함께 행복배움 돌아보기

4년차 행복배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본교 행복배움 4년간 운영부장 및 담당교사들이 한번도 2년 연속 담당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가장 먼저한 일은 지난 3년간 꾸준히 기획위원회를 하셨던 2분의 부장님과 함께 3년간의 여정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3년간 담임으로써 학급활동을 이끄신 선생님과 금년 담당자들이 모여 팀을 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들여 세원고의 연차별 행사를 행복배움의 기본 목적에 맞게 정리하고나니 3년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 세원고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음을 알게 하였다. 이를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알리고 나누기위한 다음과정은 공동체별 행복배움 성찰의 날이다.

### ○ 함께 행복배움 나누기 – 행복배움 성찰의 날

행복배움 성찰은 교육 공동체별로 진행하였으며, 시간차를 두고 진행하였다. 교사의 경우 행복배움학교의 기본 목적과 그에 따른 세원고의 지난 여정을 함께 나누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별로 모여 우리만의 행복배움에 대한 중지, 지속, 시작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원만의 행복배움학교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은 대의원회를 열어 우리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복배움학교의 목표를 공유하고 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급 특색 활동 및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라 학부모 총회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깊이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기에 학부모회 회의 및 학부모 모니터링 활동 시에 행복배움학교의 취지 및 본교의 활동을 안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하여 교육공동체가 행복배움학교가 인천형 혁신학교임을 인지하고, 민주적 공동체활동과 창의적 교육과정 그리고 미래형 혁신학교를 만들어 가기위해 교육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구분	일시	내용	장소
교사	4월 29일(금)	행복배움 성찰의 날 전문적 학습 공동체	미래융합실
	6월 24일(금)	행복배움학교 돌아보기	전학공 장소
학생	5월 31일(화)	행복배움학교란 무엇인가 행복배움학교 돌아보기	미래융합실

학부모	3월 31일(목)	행복배움학교란 무엇인가	3층 스터디카페
	4월 19일(화)	행복배움학교 돌아보기	공용교실1
행복배움 성찰 평가회	5월 4일(수)	정량평가 지표 확인 및 평가	종합회의실



행복배움 성찰의날(교직원)



전문적학습공동체별 성찰회



전문적학습공동체 토론 활동지



행복배움 성찰의 날(학부모)



행복배움 성찰의 날(대의원회)



학년별 행복배움설명회(1학년)

## 2 함께라서 행복한 함께행복배움의 날

### ○ 함께 행복배움 즐기기

본교의 함께행복배움의 날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주제로 학생 자치 활동중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스스로 배우고 익혀 나누는 활동인 학술제 중간 발표회를 공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행복배움학교를 처음 시작하게 하셨던 전임 교장선생님과 3분의 전임 연구부장님들의 축하영상과 함께 세원고의 창의적 교육과정 및 추진단을 활용한 학생중심 발표회 운영 스토리와 직접 추진단으로써 활동하였던 대표학생 2인의 경험담을 듣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마지막에 금년에 새로 구성되었지만 전교생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있는 중창단의 공연을 끝으로 종합평가를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타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시지는 못했지만 여러 학부모님과 본교 졸업생들까지 참관하며 행복배움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시간	내용		비고
14 : 40	등록		
14 : 40 ~ 14 :50	개회 및 일정안내	10'	학교장인사 학술제 참관 방법 안내
14 : 50 ~ 15 :10	배움나눔 학술제 참관	20'	
15 : 10 ~ 15 :20	함께행복배움 생각하기	10'	축하영상 5' 함께행복배움의 날의 의미 5'
15 : 20 ~ 15 :30	함께행복배움 돌아보기	10'	인천세원고 행복배움의 시간 돌아보기 7' 사진영상 3'
15 : 30 ~ 16 :10	함께행복배움 나누기	40'	창의적 교육과정과 공간혁신 15' 학생 / 교사 중심 활동 사례 15' 학생 추진단 체험 사례 10'
16 : 10 ~ 16 :30	함께행복배움 즐기기	20'	중창단 공연



함께 행복배움의 날



고교학점제 이야기



추진단 운영의 실제



주제탐구 교실



씨밀레 중창단



## 3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설계하는 교육과정

### ○ 교육과정도 아는만큼 보인다.

어떤 교사, 학생, 학부모만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도 아는만큼 보이는 것이고 아는만큼 관심이 갈 수 있다. 행복배움학교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한번의 행사가되고 우리학교의 사업이 되는 것이다.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배움이고, 학생과 모든 교과의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편제표가 행복배움이며,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학교의 모든 활동이 행복배움학교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학년도를 시작하는 2월, 주제중심의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날은 업무분장에 따른 학년 또는 부서별 활동 이후, 교과협의회를 진행한다. 다음날은 학교의 1년 생활을 부서별로 나누어보고 행정부서별 특색있는 활동에 대한 의미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모든 교직원이 함께 우리 학교의 주제를 설정하고, 학년별로 다시 모여 한 해의 큰 틀이되는 학년별 주제를 정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함께 모여 학년별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내가 속한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학교가 된다면 학교의 활동이 너만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 될 것이다.

## 4 행복배움의 또 다른 시작

### ○ 교사 찬성을 98%를 넘다

행복배움 성찰의 날을 통하여 되돌아본 세원고의 지난 3년은 매해마다 서로 다른 주제로 진행되어 왔다. 19년은 퍼실리테이션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으로 하나되는 과정을 만들어 갔다. 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학교교육이 어려워 졌을 때, 교과교실제를 통하여 수업의 활동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수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정비하고, 멀티 미디어 활용 교육 연수를 통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미래형 혁신교육의 틀을 마련하였다. 21년은 교육과정 공동디자인을 중심으로 모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교의 활동을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세원고등학교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이를 토대로 2023학년도 행복배움학교 공모신청시 98%이상이 교직원이 다시한번 행복배움학교 운영을 통하여 연계성 있는 학교교육 운영에 찬성하였다.

## 5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배우는 행복배움학교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사업이 되는 것을 막아야 진짜 행복배움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운영하는 담당자는 힘들고 사업이 맞다. 하지만 함께하는 다른 교육 공동체들에게 행복배움학교는 학교 교육활동이 운영되는 기본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모든 공동체가 민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한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행복배움학교 운영 담당자와 해당 학교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일 것이다.

###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안남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 안남고등학교





## 더 멀리, 더 높게 나는 학생자치

학교명	안남고등학교	작성자	교사 이혜연
중점과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세부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제영역	함께 행복 배움의 날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참여주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요내용	안남고의 행복 배움 과정 4년 돌아보기 학생 자치 및 학급 자치 우수 사례 공유하기 안남고의 수업 개선 사례 공유하기 안남고의 발전을 위한 주제별 토론 함께 행복 배움의 날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토의 내용 반영하기		

### 1 함께 행복 배움의 날 준비하기

#### ○ 안남 행복배움학교 돌아보기

4년 간 운영된 안남 행복배움학교를 돌아보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안남고를 칭찬해!, 안남고야 부탁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포스트잇을 통해 그동안 안남고가 걸어온 기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열정적인 선생님, 확대된 휴게 공간, 다양한 방과후학교, 동료 교사 간의 존중, 체계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 안남고가 발전해온 긍정적인 변화들을 마주할 수 있었고, ‘형식적인 수업 공개와 학생 및 교사의 의사소통 기회 확대, 수평적인 의사소통 문화 정착,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확대’ 등 보완해야 할 점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시화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안남고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에 대해 공유할 수 있었다.



안남고를 칭찬해! 안남고야 부탁해! 설문 결과

## ○ 함께 행복배움의 날 운영 계획 세우기

함께 행복 배움의 날 운영을 계획하면서 운영 방식을 학급 자치 및 학생 자치 우수 사례 및 교과별 수업 사례 공유와 공개 대토론회로 나누었다. 학급 자치는 1학년 담임 선생님, 학생 자치는 학생회 대표 학생이 발표를 맞아 자료를 만들었고, 수업 사례는 교과별로 선생님들의 수행평가 결과물 및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많은 선생님들의 협조 덕분에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수업 나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대토론회 준비 과정에서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언급된 토의 주제를 정리하였고, 선생님들께 토의 주제를 공지한 후 희망을 반영하여 모둠을 구성했다.

## 2 함께 행복 배움의 날 운영하기

### ○ 학생 자치 및 학급 자치 우수 사례 공유하기

작년 행복배움학교 운영 사례집에 학생 자치를 주제로 안남고의 활동 내용을 제출했다. 올해도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자치 사례를 학생회 대표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급 자치를 실천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다양한 학급 행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자치를 통해서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급 행사를 공유했다. 아래 표는 학급 자치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 〈학급 자치 사례 자료〉

활동명		세부 내용
1	학급생활규칙 (3 Don'ts & 3 D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4월부터(상시)</li> <li>▶ 운영방법: 패들렛을 통해 학급생활규칙 1가지씩 제출 → 학생들의 의견을 유목화 →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을 위주로 학급생활규칙 및 벌칙 제정(3 Don'ts &amp; 3 Do's) → 학급생활규칙 선언문 제작 → 활동 → 학급 앙케이트를 통해 학기말 우수학생 선정 후 소정의 상품 증정</li> </ul>
2	학급 미니 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4월부터(상시)</li> <li>▶ 운영방법: 식물리스트 중에 자신이 원하는 식물 1개 선택 → 수령 → 식물의 특징, 키우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풋말 제작 → 관리 + 담임교사 참여</li> </ul>
3	감사노트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3월부터(주 1회)</li> <li>▶ 운영방법: 조회시간에 자신 혹은 타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감사노트에 적어 표현하기 → 교사의 피드백 → 학년말 감사노트 전시회에서 우수작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 증정</li> </ul>
4	배려와 존중을 위한 캠페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학기별(1회)</li> <li>▶ 운영방법: 학급 자치 회의를 통해 캠페인 주제 및 일정, 운영 방식 선정 → 캠페인 피켓 및 포스터 제작 → 캠페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학기: 폭력 없는 학급 만들기 캠페인(1학기 2회고사 이후)</li> <li>• 2학기: 학생인권 나눔 포토에세이 캠페인(2학기 1회고사 이후)</li> </ul> </li> </ul>
5	학급단합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학기별(2~3회)</li> <li>▶ 운영방법: 학급 자치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 → 학급단합 행사 일정 및 진행 방식 선정 → 학급 (부)반장을 중심으로 계획서 및 품의서 작성 → 계획에 맞춰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경기장 단체 야구 관람 및 식사</li> <li>• 미니 올림픽</li> <li>• 런치리그</li> <li>• 송별회</li> <li>• 스쿨핑[학교 내 야영]</li> </ul> </li> </ul>

6	멘토-멘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4월부터(상시)</li> <li>▶ 운영방법: 과목별 멘토-멘티 결성 후 활동 차시 별 보고서 작성 후 제출(교육과정부에서 진행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 위주) → 교사의 피드백 → 학기말 우수 멘토-멘티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 증정</li> </ul>
7	재능 나누고 우정을 키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7월 / 12월(꿈끼 주간)</li> <li>▶ 운영방법: 개인(팀)의 취미, 특기, 진로 등을 살려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을 원하는 학생 조사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 재능 나눔 활동 실시(활동 형식은 자유) ex) 캘리그라피, 캐리커처, 미니 콘서트(춤, 노래), 모의 주식투자, 디자인 플랫폼(미리 캔버스, 망고보드, 프레지) 등</li> </ul>
8	진로신문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1학기(상시)</li> <li>▶ 운영방법: 커리어 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군 탐색 및 자료 수집 → 차시별 활동지 작성(직업소개, 선택 이유, 룰모델, 자신에 대한 분석[SWOT], 로드맵, 관련 자료 소개 등) → 교사의 피드백 → 개인별 진로신문(인포그래픽) 제작 및 발표 → 자기평가서 작성</li> </ul>
9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한 주제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기: 2학기(상시)</li> <li>▶ 운영방법: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17개)의 등장 배경 및 내용 이해하기 → 모둠별 주제를 정하고 토론 활동 전개 → 차시별 활동지 작성 → 교사의 피드백 → 모둠별 주제탐구 보고서(인포그래픽) 제작 및 발표 → 자기평가서 작성</li> </ul>

### ○ 함께 만든 수업을 위한 교과별 수업 사례 공유하기

교과별 수업 사례 공유는 국어, 수학, 외국어, 과학, 사회, 예체능 교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교과별로 5분 내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수행평가 결과 및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발표했다. 자료 제작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자료를 나눠주셨고, 이를 통해 다양한 수업과 평가의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 〈교과별 수행평가 및 프로젝트 수업 사례 요약〉

주제	발표 내용	
국어 교과	<p>'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잇는 국어과 수행평가의 모습'(나의 어제와 오늘의 삶을 위한 평가)</p> <p>1)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 글쓰기 3) 서평 작성하기</p>	<p>2) 시를 활용한 성찰하는 수필 쓰기 4) 견의문 작성하기</p>
외국어 교과	<p>1) 코로나가 학습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인포그래픽 제작하기 2) 패들렛을 활용한 수업 노트 작성하기 4) 중국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 비교를 주제로 발표 자료 만들기</p>	<p>3) 일본 지도 퍼즐 맞추기 5) 한자 이름 디자인하기</p>
수학 교과	<p>'교과융합 수행평가 사례 소개'</p> <p>1) 수학: 곱셈공식 노래 만들기, 방정식과 부등식을 활용한 시 창작, 도형의 방정식 프로젝트 2) 수학 I : 실생활 수학 관련 신문 만들기 4) 미적분: 일상생활 소재를 함수로 표현하기</p>	<p>3) 확률과통계: 진로 관련 기사 만들기 5) 기하: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이용한 추상화 그리기</p>
사회 교과	<p>'사회과 프로젝트 학습 평가 사례'</p> <p>1) 통합사회: 나만의 행복 지도 만들기(행복의 의미와 기준 정하기) 2) 한국사: 현대사 구술 동영상 제작 4) 지역이해: QGSIS 프로그램을 활용한 통계 지도 만들기</p>	<p>3) 윤리와사상: 서양 윤리사상가 스크랩북 만들기</p>

과학 교과	1) 인포그래픽 제작 및 전시회 운영 3) 훌로그램으로 과학개념 설명하기 5) 기후생태 환경교육(온실가스를 이용한 연소실험) 7) 태양 흑점 관측, 스피닝 로봇 만들기	2) 주기율표 규칙성 찾기 4) 심화자주탐구교실 운영 6) 과수다활동('달의 모든 것'영상 제작)
예체능 교과	'삶을 위한 배움을 실천하는 미술 수행평가' 1) 정크 아트 프로젝트(폐품을 활용한 예술작품 만들기)	

### ○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통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 만들기

함께 행복배움의 날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는 주제별로 10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안남고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직원 8개 모둠, 학생 1개 모둠, 학부모 1개 모둠으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개인별 의견을 작성한 후 모둠 내에서 공유하고, 모둠별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래의 표는 토의 주제와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다.

####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주제 및 토의 내용〉

주제	토의 내용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	2025 교육과정 사전 안내 제공, 소수 선택 과목 및 꿈두레 교육과정 활성화, 교과별 요구 사항 반영,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효율적 운영
민주적인 의사소통 및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방안	학생-교사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학급자치 활성화, 인권 존중 문화, 동료 교사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인사하는 문화, 정보전달 과정 체계화, 업무 간소화를 위한 노력, 학부모-학교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공개 수업, 리로스쿨 등을 통한 소통 창구 확대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
기초학력 향상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	기초학력 기준 설정 및 기초학력 향상 반 운영, 방과후학교 수준별 운영, 기초학력 향상 결과 공유, 외부 강사 도입을 통한 개인별 학습 코칭, 또래 및 대학생 멘토링 운영, 마음 성장 프로그램 운영, 면학실 활성화, 학교 공간 활용 및 개방, 강화물 등을 통한 우수 실천 사례 보상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 방안	주제형 및 교과형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연수 시간 인정, 참여 자율화, 운영 주제의 다양화, 행정 업무 간소화, 교사 체험 활동 확대
의미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 방안	학급 자치 활동 시간 확대, 외부 강사를 통한 자치 활동 활성화, 소감문을 통한 자치 활동 내실화
부서 내 및 부서 간 업무 조정과 업무 간소화 방안	업무별 주관 부서 확인, 불필요한 업무 간소화, 담당 업무 매뉴얼 공유, 업무 순환을 통한 다양한 업무 경험
학급 자치 활성화 방안	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연수 확대, 학급 특색별 자치 방안 논의, 학생 진로와 연계된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 수립, 전체 교사가 함께 하는 학습 자치 프로그램을 통한 담임 교사 업무 경감
학생 자치 활성화 방안	핸드폰 사용 자율화, 급식 시간 조정, 학교 활동 홍보, 수행평가 시기 조율, 수업 시간 노트북 대여
학부모 자치 활성화 방안	전체 학부모 및 학부모 임원 간 소통 확대, 학부모실 확장, 학부모실 위치 변경, 학부모 봉사 단체 활성화, 급식 모니터링 제안, 학부모 연수 기회 확대
행복배움학교 운영 지원 방안	스낵자판기 추가 설치, 주기적 시설 안전 점검, 학생 투표로 급식 메뉴 전정, 민원 반영을 위한 예산 수립 추진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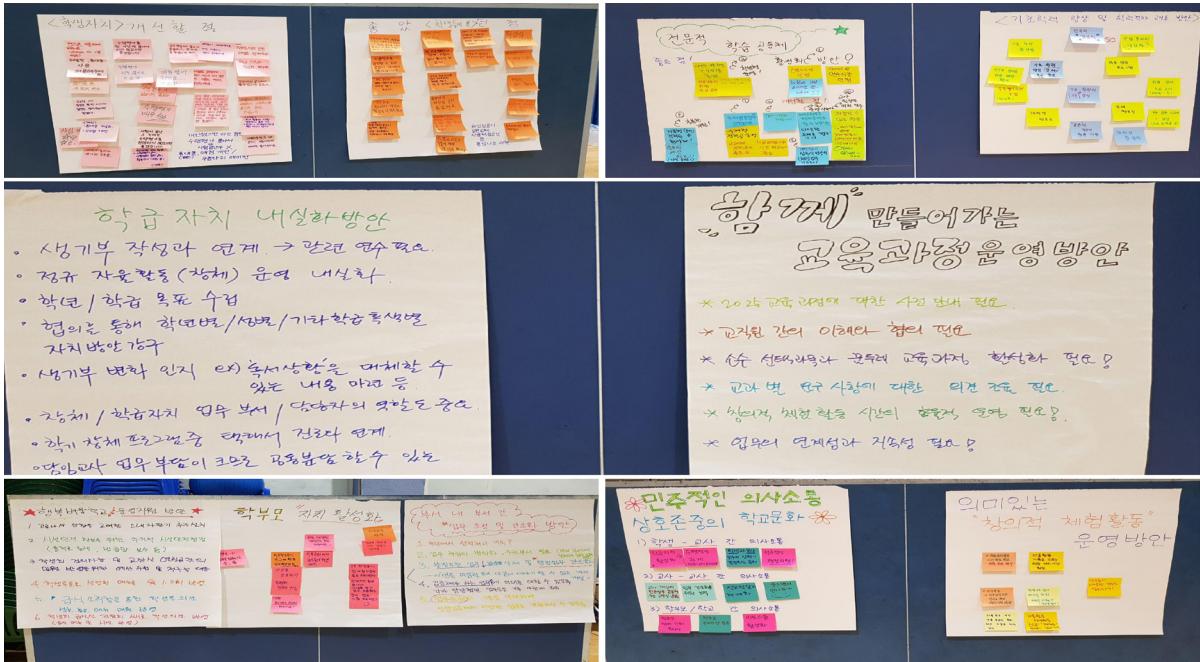


### 3. 함께 행복 배움의 날 결과 공유하기

#### ◦ 토의 내용을 실천을 위한 협의회 개최

함께 행복 배움의 날을 마치고 모둠별 토의 내용을 구글 시트에 정리하여 전체 선생님들과 공유했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부서별 협조 사항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토의 의견 중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2학기 학교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스낵 자판기 추가 설치’, ‘학부모 연수 추가 실시’, ‘교과별 수업 연수 확대’, ‘2025 교육과정 협의회 개최’ 등의 의견을 즉각 반영하였으며 논의가 필요한 내용은 정리하여 2023년 안남고 학교 운영 계획에 적용하여 연속성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토의 내용 정리〉



## 4. 안남 행복 배움학교 돌아보기

행복 배움학교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남고등학교는 지난 4년 동안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 이번 보고회는 눈에 보이는 변화에만 주목하는 결과 보고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노력과 과정에 응원과 격려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안남고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학교 일이라면 늘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주시는 학부모님, 안남고가 발전해 가는 과정을 직접 겪어온 졸업생들, 그리고 스스로가 학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꿈 많은 재학생들이 만나서 토의하는 과정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4년 간의 행복 배움학교 끝에 새로운 공모 신청을 앞두고 행복이 깃든 배움의 과정을 돌아보고 공유할 수 있었다. 끝이 시작이라는 말도 있듯이 다시 한번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안남고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행복배움학교 실천사례집

2022

Change the world

발행일 2022. 12. 30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혁신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우)21554  
홈페이지 [www.ice.go.kr](http://www.ice.go.kr)  
디자인 제작 (주)글소리 (032-873-2626)

※ 교육용 교재 활용 이외에 무단복제 및 컨텐츠 배포, 사용을 금합니다.  
※ 문의사항은 출판사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